절세위인들과
조선의 로동계급



주체113(2024)년

차 례

머 리 말

인류력사에 로동계급이 태여난지도 어언 수백년이 흘렀으며 나라마다 그 발전력사도 각이하다.

하지만 조선의 로동계급처럼 절세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을 받아온 행복한 로동계급은 세상에 없으며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혁명의 선진계급, 창조와 건설의 선봉투사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있는 로동계급은 일찌기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장성강화되여온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당을 창건하신데 이어 광범한 로동계급을 망라하는 조직을 결성하시고 로동계급을 조선혁명의 선봉부대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그들이 혁명위업수행에서 자기의 계급적 본분과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그들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몸소 대중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계급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부름에는 로동계급을 전렬에 내세워 거창한 사회력사적변혁들을 이룩하고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동계급중시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이 어리여있으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로동계급이 수령님의 로동계급, 장군님의 로동계급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바라시는 커다란 믿음과 기대가 응축되여있다.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설 때마다 제일먼저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로동계급에게 의거하여 혁명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신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현명한 령도는 로동계급을 시대의 영웅으로 억세게 키우고 그들이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그 어떤 변색도 모르고 오로지 충성의 한길을 걸어오게 한 은혜로운 손길이였다.

절세위인들의 어버이품을 떠나서 조선로동계급의 오늘의 행복도 찬란한 래일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신 그 믿음과 사랑이 하도 은혜롭고 숭고한것이여서 전설같은 일화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나날에 조선의 로동계급과 뜨거운 혈연의 정을 맺으시고 남기신 일화들중의 일부를 편집하여 도서를 내놓는다.

이 도서가 세계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리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떠메고나갈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입니다.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핵심적활동을 떠나서는 우리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성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로동계급은 자주성과 창조성이 강한 계급으로서 혁명의 핵심력량을 이룰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치는 혁명전쟁시기에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전후의 어려운 시기를 비롯하여 언제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올수 있었다.

△ 로동계급을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며

돌이켜보면 나라없던 그 세월에는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막벌이군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조선의 로동자들이였다.

바로 그러하던 사람들의 운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신 조국에 안긴 그때부터 조선의 로동계급은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여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의 창조자들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이 있는 곳이라면 석수 떨어지는 막장과 탄가루 흩날리고 열풍이 불어오는 제철소와 제강소, 눈비오는 공장의 구내길과 바람세찬 포구길을 쉬임없이 찾고찾으시여 로동계급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로동자들의 기름묻은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려주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모범로동자들에 대한 첫 표창식

주체35(1946)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영웅운동정형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일군들을 부르시였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신 로동영웅운동은 그때 전국의 모든 공장과 광산, 농촌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로부터 로동영웅운동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이 운동을 한계단 더 추켜세워야 하겠다고 하시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5.1절을 계기로 군중시위를 예견하고있으며 그밖에 깊이 생각해본것이 없다는 한 일군의 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1절을 맞으며 로동영웅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과 개별적로동자들을 전국적범위에서 선출하여 크게 표창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이 된 오늘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하며 높이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그 평가는 단순히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는 고무이기 전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는 그들의 성실한 로동과 수고에 대한 깊은 리해와 따뜻한 감정의 표시로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표창식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로하는 인민들을 표창하는 뜻깊은 모임으로 될것이라고, 전국의 선구자들인 로동영웅들을 표창하는 중요한 모임인것만큼 준비를 잘하며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도 이 모임에 참가하여 로동영웅들을 축하하는 연설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일군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시였다.

모범로동자들에 대한 표창식은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속에 해방후 첫 5.1절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되게 되였다.

로동자, 농민을 앞세워야 한다

해방된 이듬해 전세계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일군들이 작성한 5.1절기념행사계획을 보아주시였다. 계획서에는 5.1절을 맞으며 군중시위를 진행하는 문제가 반영되여있었는데 거기에는 시위대렬의 선두에 함경북도와 청진시의 일군들이 말을 타고 나가게 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저녁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해방된 오늘에 와서는 로동자, 농민들이 제일 귀중한 사람들이며 나라의 기둥이라고, 그렇기때문에 5.1절기념시위대렬은 반드시 로동자, 농민들을 앞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며 관점이라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로동자, 농민들은 해방후의 첫 5.1절을 뜨거운 환희와 격정속에 맞이하게 되였다.

이제는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새 조국건설의 열정이 굽이쳐흐르던 때인 주체36(1947)년 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량만기슭에 자리잡은 한 제염소의 소금밭을 찾아주시였다.

《**김일성**장군님이시다!》

누군가 이렇게 큰소리로 웨치자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소금을 퍼담던 나어린 제염공도, 평생 소금밭에서 등이 굽고 귀밑머리가 센 늙은 제염공도 어푸러질듯 달려갔다.

두팔을 벌리시고 그들을 반겨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과 소탈하게 인사를 나누시고 담화도 하시였다. 그러시다가 한 로동자의 손에서 참나무로 깎아만든 고무래를 넘겨받으시고 짠물이 튕기는 결정지에 들어서시여 손수 소금을 밀어보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염소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강령적 교시도 하시고 제염공모두에게 뜨거운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실 때였다.

백발이 성성하고 고역에 등이 굽은 한 늙은이가 겹겹이 둘러선 군중의 틈을 비집고 급히 앞으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잠시 우러르던 로인은 수령님앞에 큰절을 올리는것이였다. 그는 오매불망 뵈옵고싶던 장군님, 이제는 이렇게 나라의 임금님을 뵈왔으니 이 늙은것이 당장에 눈을 감는대도 여한이 없겠다고 목메인 소리로 아뢰이고나서 땅에 머리를 댄채 그냥 흑흑 흐느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급히 두손으로 로인을 부축하여 일으켜세우시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고, 해방된 우리 나라에 임금이란 없다고, 이제는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로인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집에도 로인님

과 같은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할아버지도 지금 농사를 하신다고 다정하게 알려주시였다.

참으로 해방된 오늘날 근로하는 사람들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어제날 천대와 멸시속에 억눌리고 짓밟히며 살아온 평범한 인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우대받아야 할 오늘날의 주인이라는, 이 땅우에 임금처럼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나라의 주인인 로동자, 농민이라는 숭고한 뜻이 넘치는 교시였다.

포화속에서 태여난 공장대학

주체40(1951)년 1월 어느날 포연을 헤치시며 성천군의 어느한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을 하루빨리 복구정비하며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자체로 관리간부들과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공장대학을 내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를 위한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구상은 로동자들이 생산에서 리탈함이 없이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선진과학과 기술을 마음껏 배울수 있게 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기술인재양성방침이였다.

그것은 또한 필요한 민족간부를 자체의 힘으로 체계적으로 키워낼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하고도 과학적인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주체40(1951)년 7월 15일 조선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인 공장대학이 처음으로 태여나게 되였다.

포화속에서 태여난 공장대학!

정녕 그것은 교육사업을 사람들을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업의 첫 공정으로 보시고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교육사상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전쟁시기에 태여난 공장대학의 우월성을 확증하신데 기초하여 주체49(1960)년 9월부터 온 나라의 중요공장들에 공장대학, 공장고등기술학교들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절대적기준

평양대극장건설이 마지막단계에 들어선 어느날이였다.

현지에 나오시여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무대부분지붕이 아무래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이때 건설을 책임지고있던 일군이 한 로동자가 보내온 편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보여드리였다.

그 편지에는 무대부분지붕에 대한 그의 의견이 적혀있었다.

평범한 로동자의 의견이 담긴 편지를 다 읽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옳다고, 인민들이 나쁘다면 다 나쁜것이고 인민들이 좋다면 다 좋은것이라고, 이 극장이야말로 인민들이 주인인데 인민들이 좋다는대로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4마리의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기러기 1마리가 처진것같으니 고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그 극복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한 로동자의 소박한 의견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는 일군들을 감동시켰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짓는 이 대극장은 진정 인민들을 위한 예술의 전당이니만큼 인민들의 요구대로, 인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잘 지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중요한것을 가르쳐준 동무라고 치하해주시며

주체51(1962)년 1월하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어느한 회의에서는 황해남도의 신천, 재령, 안악 등 중요한 알곡생산지대의 농촌경리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재령군농기계작업소에서 온 한 뜨락또르운전수도 참가하였다.

그는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여 알곡소출을 늘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경험을 귀중히 여기시여 토론을 아주 잘한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하고싶은 말을 다 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회의에서 거의 4시간동안이나 토론을 하게 되였다.

장시간에 걸친 뜨락또르운전수의 소박한 토론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동무가 오늘 실속있는 토론을 하였다고, 농촌기계화초병답게 일을 잘하라고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참 기특한 동무라고, 자신에게 중요한것을 가르쳐준 동무라고 치하하시면서 일군들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6(1987)년 2월에 진행되였던 어느한 회의에서도 25년전에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하여 또다시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범한 농촌뜨락또르운전수의 소박한 경험토론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포착하시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해주시면서도 오히려 그가 중요한것을 깨우쳐주었다고 하시면서 수십년세월이 지났어도 잊지 못해하시였다.

사연깊은 협의회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한 도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의회를 조직하시였다.

일군들은 아마 생산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이 토의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한 공장의 이름을 찍으시면서 그 공장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대하여 토론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순간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중시하여 소집하신 회의에서 토의되

는 문제가 로동자들의 후방사업문제이기때문이였다.

후방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먼저 강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하며 후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후방보장사업이 아직도 잘되지 않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자들에게 과일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못내 걱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래도 공장일군들과 협의회도 하고 로동자들도 만나 생활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이 협의회를 조직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이하여 바쁘신 현지지도기간에 몸소 이 협의회를 마련하시였는지 그 웅심깊은 뜻을 알게 된 일군들은 다시금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런데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득 여기에 녀성동무가 오지 않았는가고 물으시며 장내를 둘러보시였다.

공장의 한 녀성일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동무가 한번 대답해보라고, 공장의 부식물공급정형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그는 무엇부터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몰라 한동안 망설이였다.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남새는 제대로 공급받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녀성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남새는 도에서 자체로 심어 보장해야 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교시하

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로동자들의 닭알과 기름, 된장, 간장 공급정형에 대해서도 다심히 헤아리시였다.

녀성일군이 드리는 대답을 들으시며 무엇인가 적기도 하시고 계산도 해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안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에서 이미 리용하고 있는 남새밭에 거름을 많이 낼데 대한 문제, 분수식관수를 적극 도입하고 두벌농사를 짓는 문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산간지대의 기후에도 잘 자라는 남새품종을 배치하는 문제, 도시주변에 남새밭들을 많이 늘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하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어느한 부문의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실 때에도 그 도의 인민들이 바다와 멀리 떨어져있다보니 물고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것을 념려하시여 동해의 어느한 수산사업소를 그 도에 떼줄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으며 남새와 함께 고기와 먹는기름, 겨울나이용석탄공급문제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일일이 헤아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소집하신 협의회들은 북방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다.

△ 로동계급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불러일으키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로동계급을 찾아가시여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나라형편도 이야기해주시며 준엄한 난국을 타개할 방도도 함께 토론하시였다.

새 조국건설로 들끓던 해방직후와 가렬한 전화의 나날, 전후복구건설시기를 비롯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들속에 계시였다.

지금도 만경대갈림길에 서면 해방후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을 곁에 두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눈에 어려오고 무너진 벽체우에 앉으시여 페허를 하루빨리 가시자고 절절히 호소하시던 수령님의 교시가 귀전에 울려온다.

언제나 로동계급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가장 혁명적인 근로자, 부강조국건설의 담당자로 키워주시고 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의 로동계급은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의 창조자로 될수 있었다.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으시여

주체34(1945)년 10월초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리시던 고향 만경대를 곁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가시였다.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만경대를 떠나신 때로부터 20년세월, 눈보라만리 행군길에서도, 밀림의 긴긴밤 우등불가에서도 한시도

잊으신적 없던 그리운 고향 만경대였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떠나시던 그 길로 해방의 새봄을 안으시고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립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고향 만경대가 아니라 새 조선의 로동계급이 기다리는 강선으로 곧바로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립고 그리운 조부모님들과 고향사람들과의 상봉도 뒤로 미루시고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으시여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며 나라의 큰일을 의논하시였던것이다.

자체의 힘으로 부강한 나라를

주체36(1947)년 4월중순 어느날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들앞에서 참으로 감동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부강한 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일시적인 리익만 생각하면서 남에게 의존하여 살아나가려 한다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없을뿐 아니라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달성할수 없으며 또다시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되고말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그 어떤 곤난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여도 남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나가야 하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하나하나 축성하여나가야 한다고,

바로 이 길만이 부강한 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길이며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고 광명한 미래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결연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철리를 새겨주시며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진제강소를 찾으시였다.

일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배인에게 기술자들은 몇명이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기사는 없고 야금기수가 한명 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시며 제강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어디 가나 일제의 악랄한 책동에 의해 파괴된 흔적이 력력히 비껴있었다.

회전로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로의 파괴상태를 료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은 무거우시였다.

파괴된 전기설비와 로체, 쇠물이 얼어붙은채로 있는 회전로안…

회전로복구사업이 너무도 막연하다는 생각에 손맥을 놓았던 일군들인지라 자책감으로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그러는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리 청진제강소를 복구하여야 하겠다고, 청진제강소의 회전로를 복구하여 립철을 생산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제강소복구에서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에 대하

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먼저 5호와 6호로들을 복구하여 립철생산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다음로들을 순차적으로 복구할데 대한 문제, 부족한 기술인재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하여 로동자들이 일하면서 기술을 배울수 있도록 야간기능공학교를 세우고 기능공을 양성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외부에 널려져있는 설비들을 시급히 모아들이고 부족되는 설비는 자체로 생산하여 보장할데 대한 문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마디마디에는 난관극복의 방도가 자체의 힘을 총발동하는데 있다는 숭고한 뜻이 맥박치고있었다.

일군들은 환성을 올리였다. 그런데 누구보다 기뻐하여야 할 지배인의 얼굴에는 근심이 어려있었다. 기술자가 아닌 그로서는 이처럼 방대하고 복잡한 회전로복구를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열쇠를 쥐고있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한동안 주저하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 일을 맡아하기 힘들것같다고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중요한 문제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는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는 부족되는것이 많다고, 자체의 힘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러한 로동계급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온 나라가 전쟁의 불비속에 잠겨있던 주체41(1952)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락원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주철직장 10명 당원들의 당세포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의 토론을 들으시고 그들과 담화도 하시면서 당회의는 어렵고 힘든 일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하여 하는 회의가 되여야 하며 당회의에서는 당원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켜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방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생산을 위한 투쟁은 곧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이라고 하시면서 당원들은 선철과 콕스가 없으면 선철과 콕스를 자체로 해결하고 정전으로 송풍기가 멎으면 손으로라도 송풍기를 돌려 용선로가 서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원들은 대중의 앞장에 서서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전시생산을 보장하는데서 핵심적이며 선봉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미국놈들을 꺼꾸러뜨린 다음에는 복구건설을 해야 하겠는데 그때는 할 일이 많다, 이 마사진것을 어떻게 복구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며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그때 녀성당원인 신포향동무는 전쟁만 이기면 복구건설은 문제없다고 충성의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참으로 옳은 말이며 신심을 북돋아주는 말이라고, 이 동무의 말은 강의한 의지를 표현하고있다고, 이러한 로동계급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전후복구건설도 훌륭히 할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그후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로동계급은 발전소가 적의 폭격에 파괴되여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면 마사진 자동차를 끌어다 수리하여 뒤바퀴에 피대를 걸어 송풍을 보장했으며 그것마저 돌아가지 못할 때면 손으로 피대를 돌려가면서 쇠물을 뽑아 수류탄을 생산하였다. 선철이 떨어지면 파고철로 보충했고 콕스가 떨어지면 무연탄으로 쇠물을 녹이였다.

그리하여 그해에 전해보다 1.4배나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주었다.

복구건설에서도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

주체42(1953)년 7월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안으시고 황해제철소를 찾아주시였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제철소로동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었다.

공장정문으로 마주 달려나오는 로동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험한 구내길을 걸으시며 공장의 피해정형을 료해하시였다.

본래의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장을 돌아보시고 구내의 언덕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미국놈들을 때려눕히고 승리한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모든것이 다 파괴되였지만 그것을 복구할 든든한 밑천이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조용하고 힘있게 울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참혹하게 파괴된 현실앞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모대기는 일군들을 무한히 격동시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심하시면 모든것이 이룩된다! 평화적건설시기도 그러했고 전쟁시기도 그러했다.

실지체험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깊이 간직하고있은 일군들의 얼굴은 빛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를 복구하는데서 강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미국놈들이 파괴한 평로자리에는 더 큰 평로를 세우고 초가집자리에는 벽돌집을 지어서 복구건설에서도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힘있게 교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황철의 로동계급은 들끓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와 싸워이긴것처럼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다.

그들은 1년도 못되는 주체43(1954)년 6월 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본래의것보다 두배나 되는 평로를 일떠

세워 전후 첫 쇠물을 뽑을수 있었다.

꼭 우리의 힘으로 복구해보자고 하시며

주체42(1953)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한주일만에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시였다.

벽돌 한장 성한것없이 파괴된 벽체와 꼬이고 헝클어진 철근들이 앙상하게 드러난 천정, 여지없이 마사져 파철무지로 변한 전기로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참 무참하게도 파괴되였다고, 저렇게 파괴된것을 복구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이때 옆에 있던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2호전기로부터 복구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좋다고 하시며 지금 로동자들의 기세는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로동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드높이 복구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구내정리작업을 진행하고있었다.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애로와 난관이 있다고 하여 남을 쳐다보아서는 안된다고, 원래 자기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남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해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모두다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떨쳐나선다면 제강소를 능히 자체의 힘으로 복구건설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꼭 우리의 힘으로 복구해보자고 힘주어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자주의 신념과 하늘같은 믿음을 깊이 새기였기에 강선의 로동계급은 있는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첫 쇠물을 뽑을수 있었다.

흥남비료공장을 찾으시여

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된 주체42(1953)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남비료공장(당시)을 찾으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벽체 하나 온전히 서있는 것이 없었고 철판 하나 성한것이 없이 무참하게 파괴된 공장을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은 몹시 아프시였다.

이윽하여 비료공장복구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함주군의 농촌들에 나가보았는데 농민들은 흥남비료공장이 빨리 복구건설되여 비료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주벌농민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흥남비료공장이 적비행기의 폭격을 받을 때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고 한다고, 동무들은 이 이야기를 무심히 듣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 농민들은 이처럼 비료를 소중히 여긴다고, 우리가 농민들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풀어주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발편잠을 잘수 있겠는가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농민들의 심정을 그리도 소중히 여기시며 걸린 문제를 기어이 풀어주시려고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머금었다.

다시한번 본때를 보여야 하겠다고

주체45(1956)년!

적들의 반공화국전쟁광증이 날로 우심해지고 대국주의자들이 자주의 한길로 나아가는 조선의 앞길을 막아나섰으며 안으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에 도전해나서던 시기였다.

그때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어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눈내리는 12월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남을 믿고 혁명을 했는가, 우리 당은 강선의 로동계급과 같은 영웅적인 로동계급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부닥친 난관을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수 있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다시한번 본때를 보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6만t 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냈다.

결코 강재증산만이 아니였다.

진정 그 나날은 강선의 로동계급만이 아닌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민족적자존심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전체 인민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질풍같이 내달리였다.

도처에서 이미전의 기준량이 낡은것으로 되고 증산과 절약의 예비가 쏟아져나왔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강선에서 타오른 천리마운동의 불길은 삽시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로 타번졌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은 19만t능력의 설비로 27만t의 쇠물을 뽑아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전으로 조선인민은 《천리마》호뜨락또르와 《승리-58》형화물자동차, 《붉은기》호전기기관차, 8m타닝반, 3000t프레스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냈으며 농업생산과 물고기잡이에서 례년에 없는 실적을 올리였다.

한해에 두번 황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주체46(1957)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제1차 5개년계획은 도달하여야 할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이미 수행한 3개년계획에 비할바없이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였다. 이 어려운 과업수행에서 가장 긴절하게 요구되는것은 첫째도 둘째도 강재였다.

현실은 황철 제1호용광로를 하루빨리 건설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으나 당시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안팎으로 복잡했고 경제형편도 어려웠다. 여기에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은 조선로동당의 경제건설정책을 정면으로 도전해나섰고 패배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는 황철에 제1호용광로를 건설할수 없다고 하면서 주저앉고있었다.

혁명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직 조선의 로동계급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황철의 제1호용광로를 단 한해사이에 와닥닥 일떠세울 결심을 안으시고 주체46(1957)년 1월 3일 황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이날 황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참석밑에 황해제철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협의회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의회에서 먼저 지금 일부 사람들은 황철의 복구사업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자체로 하느라면 귀중한 경험도 쌓을수 있고 수많은 기술자들도 양성할수 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제철소가 사회주의경제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노는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동무들을 믿고 1958년 5.1절까지 황철에 제1호용광로를 건설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문제는 지도일군들이 생산과 건설에 대한 경제조직사업을 어떻게 짜고들며 예비를 얼마나 탐구리용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며 당의 호소에 궐기해나선 로동계급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맞게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황철에서는 25만t능력의 제1호용광로와 30만t능력을 가진 해탄로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났다. 날에날마다 우람찬 로체가 창공을 치받고 일떠서고 철탑들이 줄지어 높이 솟아올랐다.

벅찬 투쟁속에서 한해가 저물어가던 주체46(1957)년 12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해에 두번째로 황철의 로동계급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체조립이 기본적으로 끝나 이듬해 5.1절까지 용광로조업이 확고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이 기세로 나간다면 명년 5.1절까지 조업이 문제없겠습니다. 한때 나쁜 놈들이 황해제철소복구문제를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반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했지만 동무들이 일하는것을 보니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장 로동계급을 믿고 명년 5.1절까지 용광로를 복구할것을 결정하였던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과 같은 훌륭한 당원들이 있기때문에 자신께서는 항상 락관적이라고 하시며 명년 5.1절에는 황해제철소에 내려오시여 명절을 함께 보내시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을 굳게 묶어세워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크나큰 믿음을 안고 하시는 교시를 황철의 로동계급은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았다.

그리하여 황철의 로동계급은 그해 강철생산계획은 143%, 압연강재생산계획은 148.6%로 초과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용광로건설에 떨쳐나선 돌격조원들은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여 한건의 오작도 없이 많은 철강재를 절약하면서 제관품의 제작기일을 10여일이나 앞당겼으며 조립돌격조원들은 로동생산능률을 150%이상 높이면서도 공사의 질을 훌륭히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황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주체47(1958)년 5.1절을 계기로 제1호용광로와 해탄로를 조업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극복하지 못할 어떠한 난관도 있을수 없다

조선인민이 천리마대진군에 박차를 가하며 내달리던 주체47(1958)년, 전세계로동계급의 단결된 위력을 시위하는 5.1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황해제철소는 커다란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황해제철소 제1호용광로와 해탄로를 복구하고 조업하게 되는 이곳 로동계급의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몸소 찾아주신것이였다.

봄비가 내리고있었으나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장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페허를 털어버리고 새로 웅장하게 일떠선 제1호용광로에서 쏟아져내리는 쇠물을 보시면서 얼마나 장한 일인가고 하시며 로동자들이 큰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해주

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복구개건된 해탄로까지 다 돌아보신 다음 조업식장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먼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이룩한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성과를 높이 치하하시고 방대하고 복잡한 건설공사를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자체의 힘으로 수행한데 대해서와 그 과정에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제철소의 복구건설은 우리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지와 영웅성, 무궁무진한 창발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그들앞에는 극복하지 못할 어떠한 난관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을 그토록 굳게 믿어주시며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는 교시는 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가 하늘땅을 뒤흔들며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그날에 높이 메아리친 《만세!》의 환호성, 그것은 전후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강철기둥으로 받들어나가려는 황철의 로동계급이 올리는 뜨거운 충성의 맹세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어떤 난관속에서도 백전백승한다는 신념의 분출이였다.

락원의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주체47(1958)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락원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당시 기양관개와 어지돈관개를 비롯한 크고작은 수리화공사들이 진행되고있어 어디에서나 요구하는것이 바로 양수기와 굴착기였다.

이날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자들과 담화를 나누신 뒤였다.

공장일군들이 지배인실에 모시려고 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동무들이 일하다 앉아쉬군 하는 여기가 좋다고 하시면서 나무그늘이 진 마당에 있는 널판자로 만든 걸상에 허물없이 앉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지금 우리 나라에서 굴착기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굴착기생산문제에 대하여 최근에만도 세번씩이나 심중하게 토의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해에는 굴착기 100대가 있어야 하겠는데 아무리 토의하여보아도 사올수는 없고 우리자체의 힘으로 만들수밖에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락원의 로동계급에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같은 호소, 여기에는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제일 잘 리해한 사람들이 로동계급이였다.

락원의 로동계급은 만들수 있다고, 우리가 꼭 만들어내고야말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 대답에 너무도 기쁘시여 온 공장이 환해지도록 웃으시며

대담하게 만들어보아야 하겠다고 고무해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를 타면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만리마를 타고나가야 한다. 천리마의 대고조를 한번 더 일으켜야 하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따라 맨손으로 수백대의 양수기를 만들어낸 락원로동계급은 굴착기도 훌륭히 만들어냈다.

이 자랑찬 성과야말로 수령의 믿음에 충성으로 화답해나선 락원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탄생시킨 창조물이였다.

첫 천리마작업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시여 천리마운동의 불씨를 지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깊이 새겨안은 진응원작업반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다같이 혁신하고 다같이 전진하는 새로운 기풍을 세워나가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첫 봉화를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의 투쟁에서 천리마대진군에 떨쳐나선 조선로동계급의 미더운 모습을 보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제일 선참으로 진응원동무가 일하는 작업반에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주체48(1959)년 3월 17일 진응원작업반에 첫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수여하는 뜻깊은 모임이 진행되였다.

천리마작업반의 탄생과 더불어 천리마대진군의 봉화는 온 나라를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불길로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그후 조선은 기적의 나라로, 천리마조선으로 온 세상에 빛나게 되였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며

주체48(1959)년 9월초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강재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가실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황철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제철소의 실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방에 걸려있던 생산도표를 일군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철강재생산을 늘이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금 깨우쳐주시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가 발표된것이 바로 이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답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사업에서 선후차를 옳게 가려 중심고리를 찾아내며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열, 백을 풀어나가는 방법, 자신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을 일일이 배워주시며 강철전사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금산》, 《돈산》으로 불러주시며

주체50(1961)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룡양광산을 찾으시였다.

험한 길을 걸으시여 채굴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채굴장의 규모와 채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광산의 전경도를 펴드시고 더 늘구어야 할 채굴장들의 위치까지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깎아지른듯 높이 솟은 산들을 가리키시며 여기에 있는 돌산은 《금산》이며 《돈산》이라고 하시였다.

순간 광산의 일군들은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껏 광산을 《다 꺼내먹은 김치독》이라고 하면서 전망이 없는것으로 여겨오던 자기들이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과학적인 예지와 통찰력에 의하여 휘황한 앞날이 밝혀지게 된 그때로부터 룡양광산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전도유망한 광물생산기지로 자랑떨쳐올수 있었다.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령도계급이며 핵심부대인 로동계급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의 로동계급을 나라의 주인,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내세워주시고 수천척 지하막장의 광부들도 찾아주시며 로동계급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작용을 강화하여 온 사회가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계급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힘으로 통일단결된 강철의 부대, 가장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전위부대,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영웅부대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계급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이 악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었고 사회주의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며 헌신적인 투쟁으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다져나갈수 있었다.

△ 로동계급을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의 로동계급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으며 당은 언제나 로동계급을 굳게 믿는다는 크나큰 신임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조선의 로동계급은 영웅적위훈의 창조자,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게 되였다.

로동자들과 나누신 점심식사

주체56(1967)년 8월초 어느날 영광군안의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진강발전소 5호발전직장 언제주변에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신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명의 로동자들이 달려왔다. 흑림천가에 뜨락또르를 세워놓고 언제보수에 쓸 막돌을 싣던 로동자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일하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면서 한 젊은 로동자에게 이름이며 하는 일에 대하여 친근하게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찌나 친근하게 대해주시는지 어느새 어려움을 잊은 젊은 로동자는 활달한 목소리로 대답을 올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를 잘 보수하고 관리를 잘하여 만년대계의 구조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저 언제는

나라의 전력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귀중한 재부일뿐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하나의 유산이라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어느덧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때문에 벌써 적지 않은 시간 뜨거운 해빛아래 서계신것을 생각하며 로동자들은 돌아가려고 서둘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점심시간도 다 되였는데 이야기나 나누자고 하시며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언제나 로동계급에게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동계급을 위해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도 미루어가신다고 생각하니 일군들은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한없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점심때가 퍼그나 지났는데 이제는 떠나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아뢰였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즐거운 한때를 함께 보내다가 우리가 훌쩍 떠나가면 이 동무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하시면서 로동자동무들과 함께 여기서 점심식사를 하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시고는 허물없이 콩크리트바닥에 앉으시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로동자들은 한자리에 빙 둘러앉았다.

점심식사라야 건빵과 검소한 한두가지 찬이 전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에게 이럴줄 알았더라면 뭘 좀

더 준비해가지고 오는건데 참 안됐다고 하시며 어서 많이 들라고 거듭 권하시였다. 친부모앞에 모여앉은 자식들처럼 로동자들이 즐겁게 점심식사를 하는 행복한 시간은 빨리도 흘러갔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에게 오늘 점심엔 참으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고, 모두 앓지들 말고 일을 잘하라고 따뜻이 교시하시였다.

세 탄부와 사랑의 비행기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1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주체64(1975)년 8월초 어느날이였다.

100일전투중앙지휘부 일군들은 이날 낮에 온성군 상화청년탄광의 세 탄부가 뜻하지 않은 일로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상태가 아주 위독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즉시 도당과 탄광 일군들에게 전화로 치료대책을 잘 세우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날 저녁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즉시 100일전투중앙지휘부의 한 일군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집무실에 들어선 그 일군에게 탄부들이 위험에 처한 사실을 왜 즉시에 보고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심려를 끼쳐드릴가봐 그랬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게 제 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고, 탄부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데 있는가고 격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도당위원회와 보건부에서 단단히 대책을 취하도록 했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탄부들의 생명이 시각을 다투는데 도당과 보건부에 긴급대책을 세우라고 전화나 하고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는데 동무들은 과연 어머니다운 심정이 조금이라도 있는가고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탄부들의 신상에 닥친 불행을 두고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말없이 방안을 거니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제는 의료집단과 의약품들이 멀리에 있는 상화청년탄광의 탄부들에게 한시바삐 가닿도록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밤이 깊었지만 비행기를 띄워야 하겠다고, 1분, 1초가 새롭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 자리에 참가한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온종일 흐려있던 하늘에서 저녁부터 바람이 불면서 비방울이 떨어지고있었던것이다. 이런 날씨에 비행기를 띄우기 곤난하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였다.

창가에 다가가시여 폭우가 쏟아지는 밖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고 기상관측소에 기상상태를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시고는 온 방안이 쩡쩡 울리게 즉시 군용비행기를 띄워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그것은 인민대중, 로동계급을 하늘처럼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용단이며 은정이였다.

이 위대한 사랑속에 강력한 의료진과 의약품을 실은 군용비행기가 비내리는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자들이 부은 몸이 내리지 않아 고통을 겪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부은것을 내리게 하는데는 수박이 좋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의약품과 함께 수박을 보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사랑의 물자들을 한시바삐 환자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직승기를 띄우라고, 직승기는 두었다가 이런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탄부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직승기로 의약품과 함께 수박을 오늘중으로 보내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시면서 환자들을 큰 병원으로 옮길 때에도 필요하면 직승기를 리용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거듭 베풀어 주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담은 두번째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렇듯 한없는 은정은 그대로 사랑의 불사약이 되여 세 탄부는 기적적으로 소생하였으며 나날이 건강이 회복되여 갔다.

그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그들을 큰 병원에서 치료한 다음 료양소에 보내여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도록 할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고 또 거듭되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서 세 탄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초소에 서게 되였다.

친어버이가 되시여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느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한 기대앞에 이르시여 기대공들의 작업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대를 아주 능숙하게 다룬다고 하시였다.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그들이 부부간이라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그런가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가까이로 다가가시여 녀성기대공에게 나이는 몇살인가, 자식은 몇인가고 가정생활형편에 이르기까지 다정히 물으시였다.

친어버이의 품에 안긴듯 감격을 금치 못하여 말씀올리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부가 이렇게 한 기대에서 일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로동자부부의 행복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그들은 감사의 큰절을 드리였다.

그들의 인사를 받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일을 잘하라고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전화를 걸어주신 사연

주체90(2001)년 5.1절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날 자강도의 한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무슨 중요한 문제때문에 전화를 거신것으로 생각하던 일군은 송수화기에서 울려나오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을 들으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강계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군 한다고, 1998년 1월 대한추위때 강계지구를 현지지도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고, 자강도인민들은 그처럼 곤난한 때였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기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언제나 씩씩하고 랑만에 넘쳐 일하는 자강도로동계급을 보면서 우리가 약해진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억세여지고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고, 그때 자강도인민들이 자신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시였다.

바로 자강도사람들이 보고싶으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의 첫 5.1절에 도의 책임일군을 찾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올해에 들어와 자강도에 한번도 가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기다릴것같아 동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려보내주겠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4부자운전수를 만나시여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드넓은 대지로 전변된 황해남도 태탄군 류정리의 다네벌을 찾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창한 자연개조사업에 참가하여 애국충정을 바친 사람들의 위훈부터 먼저 뜨겁게 헤아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장풍군 공훈뜨락또르운전수 김범룡동무와 그의 아들인 김영수, 김철수, 김인수동무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집떠나 고생하는 자식을 오래간만에 만나는 혈육의 심정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자애에 넘치신 눈길로 바라보시며 토지정리에 얼마나 동원되였는가고 정깊은 어조로 물으시였다.

꿈만 같은 일을 당하여 몸둘바를 몰라하며 김범룡동무가 4년동안 동원되였는데 토지정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하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볼수록 대견하신듯 좋은 일이라고, 용타고 하시였다.

나라없던 세월 소경엄마의 손을 잡고 이 골목, 저 골목 동냥길을 헤매이던 김범룡동무가 군토지건설사업소 불도젤운전수로 자진한것은 고향땅에 제대배낭을 푼 그날부터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 전선을 종횡무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토지정리의 포성을 장엄히 울리시였다는 소식은 이들 4부자를 무한히 격동시키였다. 그들은 지체없이 강원도토지정리현장으로 탄원하였다.

강원도토지정리, 평안북도토지정리, 황해남도토지정리…

아버지와 남편의 정을 그리워하고 남자손을 바라는 처자와 멀리 떨어져 일하는 이들에게는 말 못할 가정사정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4부자는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릴 날만을 손꼽아 세여가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단 하루도 불도젤의 동음을 멈추지 않았다.

쉽지 않은 결심이였으며 결코 헐하게 걸어온 길이 아니였다.

그들은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두달도 아닌 4년세월 자기 집안일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꽃피울 일념으로 사회주의대지를 한치한치 넓혀가는데 자기를 묵묵히 바쳐왔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진정하지 못하는 이들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쓸어주시며 그만들 하라고, 집을 떠나 몇해동안 다른데 와서 일하는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거듭 뇌이시였다.

4부자운전수는 북받치는 오열을 애써 누르며 힘들지 않았다고 떠듬떠듬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 힘들지 않았겠는가고, 참고 견디니 그럴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런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기특한 일이라고, 자본주의나라같으면 돈벌이를 위하여 떠돌아다닌다고 하겠지만 4부자가 여러해동안 다른 도에 옮겨가며 토지정리를 하는것은 떠돌이생활이라고 볼수 없다고,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몇해동안 동원되여 일한다고 하여 생활비를 더 주는것도 없지만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이야말로 훌륭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한생 무쇠철마를 다루며 흙더미들을 쭉쭉 밀어내던 억대우같은 사나이들이 끝내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대해같은 어버이품에 와락 안겨들며 오열을 터치였다.

평범한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 눈물겨운 광경앞에서 일군들도 눈굽을 훔치였다.

이 세상 만복을 받아안은것만 같은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4부자운전수는 앞으로 일을 더 잘하겠다고 거듭거듭 맹세를 다지였다.

깊이 관심하신 후방공급사업

주체98(2009)년 5월 어느날이였다.

150일전투로 들끓던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일군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일군들로부터 한해 광물생산량을 이전보다 훨씬 늘이고있다는 것과 후방기지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선광장에서 광물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부들에 대한 후방공급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금골광산 광부생활실에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광부생활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산보다 광부들의 건강부터 생각하시며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은 곳이였다.

아담하면서도 산뜻하게 꾸려진 광부생활실 홀에 들어서시여 한쪽벽면에 걸려있는 《금골광산에서 배출된 영예의 위훈자들》이라는 게시판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목욕탕과 혁신자식당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목욕탕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것 같다고, 특히 혁신자식당 내부벽체와 천정미장을 비롯한 건물미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하였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잠시후 걸음을 옮기시여 식탁우에 차려놓은 푸짐한 음식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혁신자식당의 음식이 먹음직스럽다고, 식사질이 대단히 높다고 또다시 과분한 평가를 주시였다.

일군들이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더 큰 힘을 넣도록 고무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식물창고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창고에는 광부들에게 공급하는 기초식품과 물고기, 돼지고기, 남새 등 여러가지 부식물이 그득히 쌓여있었다.

그 흐뭇한 광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단하다고, 광부들이 매우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광산의 후방공급사업이 흠잡을데없이 만점이라고 값높은 치하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땅속의 보물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과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인 로동계급의 건강과 바꿀수

없다고,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금골광산 광부생활실을 꾸려놓고 광부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고있는것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생산을 보기 전에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먼저 보아야 한다

주체99(2010)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자체로 건설한 철산원에 들리시였다.

목욕탕에 이어 식당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신자들에게 차려주는 음식도 친어버이심정으로 일일이 헤아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경쟁에서 위훈을 세운 혁신자들이 여기 철산원에서 목욕과 리발을 하고 식사까지 하니 아주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들이 좋아하면 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윽고 철산원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잘 꾸렸다고, 철산원은 생산을 보기 전에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먼저 볼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가 훌륭히 구현된 자랑할만한 편의봉사시설이라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무산의 광부들은 추운 겨울에도 로천에서 일하는것만큼 기업소일군들은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음으로써 광부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 로동계급에게 의거하시여

조선의 로동계급을 전설의 천리마에 태워 세기적인 기적의 창조자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의 력사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끝없이 빛내이시며 그들을 시대의 영웅들로 억세게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계급이 좋다고, 우리는 로동계급을 중시하고 적극 내세우며 로동계급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감으로써 강국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이어가신 초강도강행군길을 따라 이 땅에 기적과 혁신의 기상이 일어번졌다.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강선의 봉화, 함남의 불길, 온 나라에 나래친 시대정신이 어떻게 태여났는지 오늘도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다.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속에서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진 불길이였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경이적인 전변들이 련이어 일어나 조선의 존엄과 위용이 높이 떨쳐지게 되였다.

당은 로동계급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며

주체84(1995)년 4월 1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분광산(당시) 4.5갱 채광1소대 당세포당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받으시였다.

4.5갱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년전 수천척 지하막장에까지 내려가시여 이곳 광부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갱이다.

편지의 글줄마다에는 영광의 그날을 잊지 않고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광물증산으로 장군님을 받들려는 세포당원들의 철석의 맹세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광부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활달하신 필체로 당은 우리 로동계급을 굳게 믿습니다라는 력사적인 친필을 남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서한에는 행복한 나날에나 시련의 시기에나 오직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온 조선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부강조국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라시는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소한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강도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과 공장, 기업소 등 여러 단위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를 돌아보시면서 자신께서 의도한것, 자강도를 내세워 고난의 행군을 결속하려고 한것이 옳

았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강도인민들이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에 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 하는것을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고있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의 마음은 후더워올랐다.

이 모든 성과는 자강도인민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주저앉아 한탄만 한것이 아니라 배를 곯으면서도 중소형발전소를 자체로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고결한 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여

주체87(1998)년 3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금속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해 머나먼 북방길을 달리시여 성강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전체 로동계급이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다시한번 천리마를 타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앞장에서 들고나가는것이 좋을것같다고 하시였다.

시대의 앞장에서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가는 선구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고무된 성강의 로동계급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봉화를 높이 들고 다시한번 천리마를 탄 기세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켜나갈것을 전국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은 성강로동계급이 애국의 봉화를 지펴올리도록 하였으며 그것은 온 나라에 창조와 비약의 봉화로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7(1998)년 6월 어느날 자강도의 어느한 기업소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물벽면에 써붙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보시며 얼마나 좋은 구호인가, 우리도 이렇게 웃으며 가고있지 않는가고 기쁨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이 구호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천만겹의 고난과 시련도 웃으며 뚫고나가려는 조선로동계급의 견결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가 담겨져있었다.

그후 이 구호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나붙어 조선인민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유명한 구호로 되였다.

몸소 찾아주신 전력증산의 방도

주체87(1998)년 12월 어느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한 수력발전소를 찾으시였다.

동지달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현지에 나오시여 전력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발전소일군에게 발전기에서 효률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를 물으시였다.

그 일군이 수차효률문제를 설명해올리려 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묻는것은 발전기의 설계상효률문제라고 이르시였다.

그에 대해선 파악이 없는듯 일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설계상에서 발전기의 효률을 높일수 있는것도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고 자신의 의도를 다시 상기시켜주시였다.

일군은 송구스러워 어쩔줄 몰라하며 위대한 장군님께 그런 효률시험은 아직 못해보았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우리 나라의 도처에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들을 일떠세웠지만 발전기들의 효률을 높이지 못하여 전기를 더 생산할수 있는것도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발전기들의 효률을 높이는데 많은 전력예비가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제서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으시는 의도를 명백히 깨달았다.

발전소들의 실태를 검토하는데서 발전기의 효률을 어떻게 평가하며 효률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말하여 발전기자체에서 랑비되는 전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을 알아보아야 한다. 례를 들면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만든 발전기의 효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이 해명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발전소가 건설되면 운영만 하려고 했지 발전기의 효률문제에 대해서는 낯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

발전소의 일군은 물론 일군들모두가 생각이 깊어졌다.

발전기의 만가동, 만부하에만 기대를 걸면서 그 효률문제에 대해서는 낯을 돌리지 않은 자신들이 뉘우쳐졌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하많은 발전기들에서 그 효률을 조금씩만 높인다고 하여도 많은 전력생산예비가 나올것이 아니겠는가. 일군들이 속으로 얼핏 추산해보아도 그 예비는 실로 상상밖이였다.

숭엄해지는 짧은 그 한순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기의 효률문제에서 많은 전력예비를 찾아주신것이였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주체87(1998)년 겨울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기계동음이 장쾌하게 울리는 생산현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광에는 시종 웃음이 어리여있었다.

로동자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고난의 행군시기 내부예비를 탐구하면서 투쟁하여온 그 수고를 헤아리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기계앞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시였다.

이 공장에서 자력갱생하여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훌륭한 기계를 자체로 만들었단 말이지, 좋소, 좋아라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자력갱생이 얼마나 좋은가 보라고, 정말 장한 일을 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이 마련한 창조물을 두시고 그리도 대견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 로동계급은 당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내고야

마는 전통이 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은 우리 나라에서 만들수 없다고 하던 제품들을 자체로 해결한 훌륭한 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친히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기 위하여 기업소정문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즐비하게 늘어선 건물들과 숲을 이룬 나무들이 안겨오는 구내는 마치 하나의 공원과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업소일군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나무도 많이 심고 주변정리도 잘하여 기업소를 훌륭하게 꾸려놓으니 제강소에 온것같지 않다고, 완전히 멋쟁이라고 치하하시면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잘한것을 두시고 못내 대견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시관에 있는 제품들과 같이 규모있게 줄지어선 현장의 기대들을 보시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문화가 이 기업소처럼 잘되여야 로동계급을 찾아올 멋이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계급의 문화, 사회주의문화는 마땅히 우리 로동계급속에서 창조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힘있는 공장이라고 하시며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공장의 영광스러운 발전로정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덕에 의하여 이 공장이 굴지의 대기계제작기지로, 《어머니공장》으로 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어 여러 직장들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집채같은 대형공작기계들이 증산의 불꽃을 날리는 장쾌한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이 강국건설을 위하여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는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나 척척 다 만들어낼수 있다고 하는데 룡성의 로동계급이 괜찮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런 대형기계공장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기업소에서 만든 대형압축기설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룡성의 로동계급이 힘이 있다고, 우리 나라의 공업의 얼굴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후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맨주먹으로 8m타닝반과 3천t프레스를 만들던 그때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이곳 로동계급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새 세기 산업혁명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최신식 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데 대하여 매우 만

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량심의 인간들, 자기의 실력으로 세계적인 창조물들을 만들어 조국을 빛내일 일념을 안고 투쟁하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최첨단돌파전의 선두에 서 있기에 우리 조국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최신식설비들도 다 만들어낼수 있게 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그 전해에도 공장을 찾으시여 주체사상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빛내여나가는 참된 애국자,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시며 공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런데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또다시 대해같은 믿음을 안겨주시니 일군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시기 공장에서 이룩한 성과는 새 세기의 산업혁명과도 같은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고귀한 혁명유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락원기계공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신 주체89(2000)년 1월 27일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과 현지지도사적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1(1952)년 6월 주물직장 당세포총회를 지도하신 력사적인 장소인 민주선전실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보신 후 작업현장에서 락원의 10명당원들중의 세 사람들인 호천학, 황순화, 장홍준동무들과 뜨겁게 상봉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니 정말 반갑다고

하시며 거쿨진 로당원들의 손을 놓지 못하시였다.

로당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며 눈물을 삼키였다.

몸도 쇠잔해지고 래일에 대한 꿈보다 지나온 생에 대한 추억이 더 깊어진다는 고령의 나이들이였지만 자나깨나 이날을 그리며 오늘까지 젊은 시절의 기백을 잃지 않고 살아온 그들이였다.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너무도 뜻밖에 이루어진 꿈같은 행복에 취하여 금시 흩어져내리는것만 같은 심신을 가까스로 가누며 격정에 떠는 로당원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해후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시였다.

세월은 참으로 빨리도 흘러 위대한 수령님께서 락원을 찾으시였던 전화의 그 시절에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였던 10명당원들이 이제는 70대, 80대의 고령이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을 따라 50여년 력사의 풍파를 헤쳐온 영웅적삶의 흔적이 력력한 로당원들의 억센 모습과 성성한 백발을 더듬으시면서 갈리신 음성으로 앓는 동무들은 없는가고, 이제는 나이들이 많은데 건강에 특별히 주의하여 모두 100살을 넘겨 살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격정의 파도가 또다시 세차게 일어번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마움에 목메여 눈물짓는 로당원들을 진정시키시려는듯 여러분들이 고령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장에 나와서 젊은 세대를 고무해주고 이끌어주고있으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로당원들의 곁에 나란히 서있는 신포향주철직장 류재명직장장을 비롯한 끌끌한 젊은 로동자들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이때 공장의 한 일군이 이 동무들이 10명당원들의 자식들이라고, 부모들의 뒤를 이어 공장을 지켜가고있다고 소개해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신포향영웅을 비롯한 전화의 날 당원들의 모습을 다시 보시는듯 감회를 금치 못하시며 락원의 10명당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생을 값있게 살았을뿐 아니라 자식들도 훌륭히 키웠다고, 락원의 대가 얼마나 든든한가고, 락원에서 충실성의 대가 억세게 이어지고있다고, 정말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하시였다.

혁명의 한길에 나란히 선 로세대와 새 세대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계급은 자기의 대를 이을줄 아는 훌륭한 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 다진 그날의 맹세를 변함없이 지키며 락원의 정신과 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이야말로 조선로동계급의 전형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락원의 로세대가 간직하고있는 고결한 정신세계에 대한 높은 평가였으며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충성의 한 모습을 흐리지 않는 조선로동계급의 량심과 의리에 대한 열렬한 례찬이였다.

순간 호천학, 황순화, 장홍준동무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하고 가는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 대를 이어 충성다하게 해달라고 하던 먼저 간 동지들의

절절한 당부가 되살아나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수 없었다.

(당과 수령을 따르는 마음은 인생의 청춘기에도 한마음, 로년기에도 한마음이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의무이기전에 량심이고 의리여야 한다.)

이것은 락원의 10명당원들이 간직한 신념이였고 의지였다. 하기에 그들은 자식들을 자기가 일하던 공장, 자기가 섰던 기대앞에 세웠다.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공장에 한생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며느리감을 고르고 사위감을 정해도 공장사람을 택하는것이 락원로동계급의 가풍이였다.

공장에는 황금으로도 마련할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더없이 소중한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당과 수령을 충성을 다하여 보위하고 높이 받드는 락원의 정신, 락원의 전통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맨주먹으로 수류탄을 만들고 빈터우에서 양수기와 기중기, 굴착기를 만들어낸 그날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산악같이 일떠서 제힘으로 대형산소분리기를 비롯한 시대의 창조물들을 안아올린 락원의 충실성의 전통은 이곳 로당원세대가 자기의 전생애를 통하여 이루어놓은 사상정신적재부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고이는 귀중한 밑천이였다.

그것을 후대에 물려주는것을 수령께 다진 그날의 맹세를 지키고 령도자앞에 량심과 의리를 지키는것으로 간주한것이 락원의 로세대들이였다. 하기에 그들은 자식들이 부모들이 섰던 일터를 지켜가는것을 아들딸들로부터 받는 최대의 공대와 덕으로 여기면서 준엄한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먹고 살아갈 걱정이 아니라 락원의

정신을 줄기차게 이어갈 일념으로 투쟁하였다.

락원의 새 세대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투쟁속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선대들처럼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충성의 대를 이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락원의 영원한 력사를 읽으시였고 조선로동계급과 인민의 변함없는 한모습을 감명깊게 보신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긍지와 신심에 넘친 어조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대를 이어가며 꽃피우는 여기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인생관의 근본핵이 있으며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의 척도가 있다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형성되고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단련되고 공고화된 우리 인민의 신념이라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야말로 조선혁명이 마련한 재부이며 대를 이어가며 물려줄 혁명의 고귀한 유산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심오한 리론적의의와 거대한 실천적의미를 부여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높은 격조를 안고 힘있게 울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의 유산으로 가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며 조선혁명은 반드시 충성의 력사를 만방에 떨치며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한생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9(2000)년 1월 28일 량책베아링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이날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립직장에도 들리시였다. 이곳에서는 베아링조립작업이 한창이였다. 로동자들은 앞선 공정에서 련속 밀려와 쌓이는 부분품들을 부지런히 조립하고있었다. 각종 규격의 베아링을 생산해내는 그들의 일손에서는 불꽃이 이는듯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완성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질이 매우 높다고 치하하시면서 로동자들의 생산투쟁을 뜨겁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로동자들의 기름 묻은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녀성로동자가 일하는 곳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시였다.

작업복을 단정히 입고 긴장하게 일손을 놀리고있는 그 녀성은 이 공장에서 애어린 처녀시절부터 일해오고있는 기능공이였다. 그는 베아링을 조립하고있었는데 어찌나 일에 열중하고있었는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까이 와계시는줄을 뒤늦게야 알아차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작업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시였다. 녀성로동자는 놀라운 속도로 베아링을 조립하고있었다. 구슬처럼 반짝거리는 베아링들을 베아링집에 설치하는 그의 손동작은 재봉기바늘처럼 날렵하고 정확하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렇게 재빨리 조립하면서도 단 한번의 실수도 모르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성로동자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손이 기계처럼 날래고 재치있게 움직인다고, 기능수준이 정말 대단하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녀성로동자는 과분한 그 말씀에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몰라하였다.

이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손에 베아링알을 한줌 쥐고있는 그에게로 허리를 굽히시더니 미소를 머금으시며 귀속말을 하시듯 남편생각이랑 아이들생각을 하면 한알 더 들어갈수도 있고 안들어갈수도 있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부모처럼 한없이 다정하고 허물없이 하시는 물으심에 녀성로동자는 어려움을 다 잊고 순간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 실수하기가 쉽다고 사실대로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그럴거라고 그의 말을 긍정해주시였다.

이때 공장의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이 녀성동무를 비롯한 모든 로동자들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혁명에 대한 하나의 생각으로 책임적으로 일하였기때문에 한건의 오작도 없었다고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제품은 곧 생산자의 사상의 반영이라고, 어려운 시기에 사업과 생활에서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로동자들은 혁명만을 생각했기에 공장도 이렇게 잘 꾸리고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볼수록 미덥고 자랑스러운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이 세상에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처럼 고상한 정신세계를 지닌 사람들은 없다고, 우리 로동

계급과 인민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딴생각을 모르고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에 충실하려는 그 하나의 생각만을 하면서 살며 투쟁하는 혁명가들이고 애국자들이라고, 이런 충성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이며 우리 혁명의 위대한 힘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며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광명성제염소를 찾으시였다.

일군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염소를 보자고 하시며 정각을 향하여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바다와 섬들, 드넓은 염전지구를 이윽토록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광에는 시종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곧추 뻗은 염전도로좌우로 규모있게 펼쳐진 염판들과 휴계실, 양수장, 배수지들…

아득히 펼쳐진 소금밭을 만족한 표정으로 부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남도에서 큰일을 하였다고, 소금밭건설공사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대자연개조사업이라고, 광명성제염소는 우리 인민이 견인불발의 의지로 간고분투하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하나의 제품을 보시고도

주체94(2005)년 9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단천내화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길이 이글거리며 열기를 내뿜는 소성로앞으로 다가가시여 선진기술에 기초하여 새로 일떠세운 직장의 기술장비와 제품들을 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마그네샤크링카생산공정을 짧은 기간에 꾸림으로써 순도가 높은 고질크링카를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대담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최신과학기술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린 결과 크링카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거듭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의 경험은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는 정보산업시대의 원리를 실증해주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과학기술이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될수 있고 강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수 있다는 귀중한 철리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품보관장소를 돌아보실 때였다.

보기만 해도 절로 마음이 흐뭇해지는 제품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삐죽삐죽 날이 선 고질마그네샤

크링카덩이 하나를 집어드시고 문득 일군들에게 보석같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보석!

예로부터 보석은 제일 귀하고 값나가는것의 상징으로 일러왔다.

외형과 색갈은 물론 땅속에서 캐냈다는 의미로 볼 때 크링카덩이는 정말 보석같은데가 있었다.

하지만 공장을 찾는 사람들마다 이룩된 성과를 두고 기뻐는 하였어도 그것을 보석에 비긴 사람은 없었다.

오직 이 땅의 모든것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하나의 광석덩이를 보시고도 그것이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것임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것을 보석의 무게로 뜨겁게 안아보신것이였다.

강선의 봉화

주체97(2008)년 12월 2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붉은 쇠물이 이글거리는 전기로앞에 서시여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면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전기로를 자력으로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격정에 젖어들었다.

초고전력전기로의 종자를 주시고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로 해결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못잊을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이 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치며 내달려야 전국의 로동계급의 발걸음이 더 빨라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릴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강선의 봉화는 조선인민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믿음이 낳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였다.

간곡한 당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소한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제사공장(당시)을 찾으신 주체98(2009)년 1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몰라보게 전변된 공장을 보시며 옛 모습을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에 들리시여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명주실생산에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침으로써 조선의 특산물인 비단천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로동계급에게 드린 경의

주체98(2009)년 5월 어느날 대흥청년광산(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마그네샤크링카생산공정을 완전히 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립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대단하다고,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식이며 주체공업이라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를 우리 수령님께서 보시였다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크나큰 믿음을 담아 광산로동계급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더욱 빛내여나가고있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증시하였다고, 로동계급이 정말 용타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사업에 참가한 모든 성원들은 다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대흥청년광산을 대흥청년영웅광산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자리에 로동계급이 없어 그러는데 그들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자신께서 우리식의 내화물생산공정을 보여주는 직관도에 직접 경의를 표시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동계급에게 드린 경의, 그것은 강국건설사에 빛나는 위훈을 세운 조선로동계급에 대한 최대의 평가였고 크나큰 믿음의 표시였다.

빛나는 실천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오랜 시간에 걸쳐 기업소의 여러곳을 크나큰 기쁨과 만족속에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자들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설해주신 비날론공업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칠수 있게 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경이적인 성과는 당의 요구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무한대한 정신력의 일대 과시로 되며 우리 인민이 지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빛나는 발현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조선인민을 어떻게 하나 잘 입혀 내세우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쳐오신 크나큰 로고를 돌이켜보시는듯 위대한 장군님의 안광에는 숭엄한 빛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사기에서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비날론을 격정에 넘쳐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비날론천을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고, 수령님의 평생소원을 드디여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

주체100(2011)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당시 흥남의 로동계급은 조선의 화학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가스화1계렬공정건설을 끝내고 시운전을 진행함으로써 비료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돌파구를 열어놓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업소에 도착하시여 일군들이 미처 인사를 올리기도 전에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흥남의 로동계급을 축하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탄산가스흡착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탑들이 다 보이게 찍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들을 모두 곁으로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탄산가스흡착탑은 자력갱생의 산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로동계급은 일단 달라붙으면 무조건 해내고야만다고 기쁨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오직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신념과 배짱은 오늘 조선로동계급의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더욱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로동계급을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로동계급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창조와 건설의 힘찬 로력투쟁으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며 더욱 용감하게 싸워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오늘 조선의 로동계급은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는것이다.

△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내세워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조선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고 내세워주고계신다.

세상에는 그 어디에나 로동계급이 있다. 하지만 조선의 로동계급처럼 위대한 수령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로동계급은 없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따라 언제나 변함없이 곧바른 길로만 걸어온 조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성장하였으며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속에서 영웅적신화의 창조자로 자랑떨쳐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고향집보다 먼저 찾으신 새 조국건설의 주인공들이 바로 강선의 로동계급이였고 전후의 그처럼 어려운 시기 천리마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도록 내세워주신 시대의 선구자들도 다름아닌 조선의 로동계급이였다.

조선혁명앞에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조선의 로동계급은 강계정신을 창조하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는데서 자기의 혁명적기상을 남김없이 떨쳤다.

참으로 조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의

억센 기둥을 세우며 영웅적신화를 창조하여온 나라의 맏아들이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세상에서 조선의 로동계급만이 지니고있는 이 성스럽고 영예로운 부름에는 조선의 로동계급이 자기들을 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돌격함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영웅적인 조선로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를 만방에 떨쳐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최상최대의 영광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이곳 련합기업소를 돌아보시면서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로동계급이 있어 나라의 철도현대화는 빛나게 실현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조선의 로동계급을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고 긍지높이 불러주시였다.

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고귀한 칭호이며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절대불변의 믿음을 지니시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시는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신 조선의 로동계급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최상최대의 영광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

주체104(2015)년 10월 2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새로 만들어낸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정의 마음,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우리식으로 만들수 있은 비결은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이 자기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믿고 달라붙은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이룩된 성과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 의거하고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동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의 투쟁본때가 어려있는 지하전동차는 자신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고 하시면서 당에 무한히 충직하고 슬기로운 우리의 로동계급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기에 마음은 든든하며 사회주의조선의 힘은 무한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 넘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나이와 같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우리식의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10월이 더 빛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고귀한 땀방울로 당과 인민에게 드리는 훌륭한 열매를 마련한 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자신에게 제일 큰 힘을 안겨주었다고

주체104(2015)년 11월 1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전동차를 타시고 개선역으로부터 영광역에 이르는 구간을 왕복하시며 시운전과정을 자세히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개발할수 있은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라는 관점밑에 투쟁한 결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이 합심하여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을 해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과학기술에 의거하면 무엇이든 다 만들수 있다는 신심이 용솟음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 무한히 충직하고 슬기로운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하전동차의 성과적인 시운전을 통하여 수입병이라는 말자체를

없애야 한다는것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확증해주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제일 큰 힘을 안겨주었다고 하시였다.

△ 사상과 신념을 심어주시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의 성패는 그 담당자인 로동계급의 사상과 신념에 달려있다. 사상과 신념이 강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으며 그것은 억만금의 재부나 핵무기에도 비길수 없는 무한대한 힘을 낳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의 로동계급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로동계급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으며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되였다.

도서실에도 들리시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완공되여 준공을 눈앞에 두고있던 주체103(2014)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천사만사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현지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로동계급에게 훌륭히 꾸려진 로동자합숙을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합숙건물을 보고 또 보시였다.

이윽고 로동자합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합숙생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서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도서실에 들어서시여 로동자들이 앉게 될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흐뭇한 시선으로 방안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동자들의 사상을 발동하자면 그들이 학습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숙생들이 하루일을 끝마치고 여기에서 전자도서열람도 하고 학습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합숙생들이 도서실에서 여러가지 책을 많이 보면서 학습열풍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합숙생들이 책을 많이 보아야 당의 사상과 의도를 잘 알수 있고 현대적인 과학기술도 습득할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조선인민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과학기술인재로 키워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은 이렇듯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의 크지 않은 도서실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혁명사적교양실에서의 30분

주체103(2014)년 12월 1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만부하의 동음높은 공장의 여러 생산현장을 커다란 만족속에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혁명사적교양실로 가보자고 하시였다.

순간 공장일군들의 마음속충동은 컸다.

바로 1년전에도 공장을 찾아오시여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오래동안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하는 사진문헌들을 더 잘 모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강사의 인사를 반갑게 받으시며 혁명사적교양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관홀에 환하게 새로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을 바라보시면서 천연색사진문헌으로 모시니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상의 사진문헌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였다.

주체45(1956)년 12월 31일 사랑하는 딸자식들과 함께 새해를 맞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공장설맞이모임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로력혁신자들을 축하해주시는 사진문헌이였다.

그날의 감동깊은 화폭을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사진문헌앞에서 퍼그나 오래동안 서계시였다.

수행한 일군들도 숭엄한 감정에 잠겨 뜻깊은 사진문헌을 우러르고있는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사진문헌이 있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공장의 녀성당일군이 반색을 하며 2호실에 모셔져있다고 대답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2호실을 향하여 총총히 걸음을 옮기는 공장일군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그 사진문헌으로 말하면 주체51(1962)년 1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장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해주시는

력사적인 사진문헌이였다.

그런데 1년전 공장을 찾아오시여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실때 이미 보아주신 그 사진문헌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마음속에 그렇듯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고 생각하니 수행한 일군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회의장을 울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 울려나오는듯한 사진문헌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공장사업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공장일군들을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 부르시여 공장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해주시였겠는가고 마디마디 깊은 의미를 담아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을 담아, 뜻을 담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혁명사적교양실에 모셔져있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진문헌들과 령도사적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들을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을 하였으며 우리 일군들이 어떤 인민관을 지니고 일해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동행한 일군들은 새기고 또 새기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터마다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상전을 진공적으로 벌려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것은 생산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근본담보라고 하시면서 공장당위원회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흥분된 심정을 안고 결음결음 따라서는 녀성당일군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종업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참된 딸들로, 녀성혁명가들로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고 강사, 관리원들과 사연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으신 시간은 30분이였다.

진정 그 30분은 당조직들이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자기 단위에 깃든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당정책관철에서 뚜렷한 전진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깊이 새겨준 귀중한 혁명강의시간이였다.

사상사업이자 생산실적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안의 어느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 있은 일이다.

사업소의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수산사업소를 멋있게 건설한데 만족해하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당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뭐니뭐니해도 수산사업소에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의 명제가 있지 않는가고, 나가면서도 잡고 돌아오면서도 잡고 가까운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잡아야 한다고 자못 흥그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군은 어로공들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고 어로수단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

혁신운동도 힘있게 벌리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일군이 올리는 보고를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론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기술이 있어야 하고 어로수단도 좋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아무리 높은 기술이나 좋은 어로수단도 사람의 사상이 발동되여야 은을 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의 생각은 깊어졌다.

사실 그는 사업실적을 높일수 있는 근본방도를 기술일면에서만 찾고있었다.

하지만 여러 수산사업소에서 높은 물고기생산실적을 낼수 있었던 근본비결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기어이 더 높은 성과로 보답하려는 충성의 마음,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였던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사실 사상사업이자 생산실적이며 생산실적이자 사상사업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고 하시였다.

사상사업이자 생산실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깊은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하는데 생산력제고의 비결이 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끝장을 볼 때까지

주체103(2014)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한 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실내원형못에서 욱실거리고있는 메기들을 보시고 물 절반, 물고기 절반이라고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잠재력이 대단하다고, 공장에서 로력과 생산면적을 늘이지 않고 다음해부터 100t이상의 메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거듭 강조하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일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과 함께 양어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는데 있다는것이였다.

끝장을 볼 때까지!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어려있는 의미깊은 말씀이였다.

진정 길지 않은 이 가르치심속에는 로동계급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중도반단하지 말고 실지 그 은이 날 때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한다는 절세위인의 간곡한 당부가 비껴있었다.

깊이 새겨주신 사상적각오

주체104(2015)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버섯공장(당시)을 찾으시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평양시에서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를 훌륭히 건설하여 성과를 마련하였다고 기뻐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구상대로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를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업어주고싶은 심정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격정에 젖어있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려는 일군들의 사상적각오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일해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이 정신력을 가지면 사업에서 언제나 성공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몸소 명예지배인이 되겠다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신것은 주체104(2015)년 5월 어느날이였다.

기업소에 꾸려진 연혁소개실에 들리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걸어온 기업소의 발전력사에 대한 이곳 일군의 설명을 감회깊이 들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자면 수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기

업소가 걸어온 나날들이 돌이켜져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숭엄해지는 마음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의 명예지배인이 되여 이 기업소를 추켜세우려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명예지배인, 길지 않은 이 말속에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석의 의지가 뜨겁게 어려있었던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자욱이 수산부문의 어느 단위보다 많이 깃들어있는 기업소인것만큼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나가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나라의 수산업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마음속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주체105(2016)년 5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생산계획을 수행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의 불굴

의 정신력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무궁무진한 힘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세계적수준의 새로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은 그것을 계렬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직접 세워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알아보시며 하나하나 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 자랑찬 결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현대화사업이 방대하지만 새로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보란듯이 만들어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일한다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정답게 불러주신 《보배공장》

주체105(2016)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을 찾으시였다.

깨끗하고 번듯하게 꾸려진 공장구내를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걸만 보아도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공장을 찾으시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였다는것이 알린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에도 들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비롯한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속에 이 공장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나라의 보배공장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하시였다.

나라의 보배공장, 바로 여기에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공장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맡은 일에서 보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것을 바라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일데 대한 문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다색화, 다양화된 세계적수준의 합성가죽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달성해야 할 과업들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공장일군에게 보배공장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라고 정답게 이르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거듭 불러주신 이 부름에는 조선인민들이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한 물질생활을 향유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마음속진정과 함께 공장이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길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 깃들어있었다.

크나큰 믿음이 담긴 부탁

주체105(2016)년 9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함경북도큰물피해복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겨울

이 오기 전에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해주시였다.

그중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신 문제가 세멘트보장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큰물피해복구사업에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기치를 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에게 자신께서 큰물피해복구에 필요한 세멘트를 생산보장할것을 부탁하였다고 전해주어야 하겠다고, 그러면 그들이 큰물피해복구에 필요한 세멘트를 무조건 생산보장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명령을 내리신다 해도 그것을 더없는 긍지로, 행복으로 받아안을 상원로동계급이였다. 그런데 평범한 로동자들에게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하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전달받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떨쳐일어나 필요한 세멘트전량을 제기일내에 어김없이 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부탁에 담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의 세계가 상원로동계급이 기적의 힘을 낳게 한것이였다.

새해벽두에 찾으신 공장

주체106(2017)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시였다.

허나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왜 새해 첫 현지지도로 자기들의 공장을 찾으시였는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이제 각 도에 가방공장들이 다 꾸려져 학생가방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2~3년에 한번씩 새 가방이 차례지게 할수 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천만가지 나라일을 돌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의 학생수와 그들에게 필요한 가방수자까지 다 헤아리고계시였기때문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남의 나라 상표를 단 가방을 메고다니게 하면 아이들에게 우리 나라가 제일이라고 교양할수 없으며 애국심도 키워줄수 없다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만든 교복을 입고 우리가 만든 가방과 학용품을 쓰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래야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리의것을 제일로 여기고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싹트고 자라날수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한 나라의 기둥감들로 키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렇듯 새해 정초에 가셔야 할 곳도 많건만 평양가방공장부터 찾아주시였던것이다.

일군들은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가방을 안겨주는것은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후대들에게 애국의 넋을 심어주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날바다우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주체107(2018)년 5월 24일 강원도의 석전만에서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 높이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돌아보시려 이곳을 찾으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고들 하였다고 하시며 일군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석전만을 가로지르며 쭉 뻗어간 석전만다리를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견인불발의 영웅적투쟁으로 고암-답촌철길을 훌륭히 완공한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고암-답촌철길건설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우리 로동계급의 강용한 기상과 투지를 천백배로 떨치며 날바다우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

누구나 이 억척의 신념을 지니고 투쟁할 때 무에서 유를, 화를 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절대의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충성과 위훈으로 생을 빛내일수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신념을 안고 모든 난관을 물리치며 기적을 안아온 건설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그렇듯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던것이다.

기적을 낳은 원천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폭열도 아랑곳하지 않으

시고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발전소건설실태를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밑에서 타오른 영웅신화창조의 불길을 함경북도에 옮겨지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와닥닥 해제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때처럼 온 나라가 들썩하게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밑에서 타오른 영웅신화창조의 불길을 함경북도에 옮겨지펴 온 나라가 들썩하게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일군들은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얼마후 험한 길을 톺아 높은 곳에 위치한 언제전망대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과 기적창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공사량이 방대하기는 하지만 발전소건설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면 얼마든지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팔향언제를 쌓는데 기여한 발전소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팔향언제는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함경북도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뚜렷이 보여주는 시대의 기념비로, 당정책결사옹위의 성벽으로 거창하게 일떠설것이라고,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에게 자신의 이 말을 꼭 전해주고 고무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은 그대로 전체 발전소건설자들, 도안의 전체 인민들을 새로운 기적창조에로 힘있게 부르는 고무적 기치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에 기어이 보답할 결사관철의 의지로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정신력에 떠받들려 그이께서 다녀가신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팔향언제가 완공된데 이어 그해 12월에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어랑천4호발전소 창포언제콩크리트치기가 결속되였다.

진정 이는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였다.

생산정상화의 근본담보

주체107(2018)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제품견본실에 들리시여 가방을 보아주시면서 공장은 비록 요란하지 않아도 가방의 질은 대단히 좋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책임일군들에게 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점령하기 전에 생산의 주인이며 담당자인 종업원들의 마음부터 먼저 점령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만졌다.

공장의 연혁소개실에 들리시였을 때에도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이 1970년대에 원산영예군인연필공장에서 발족되였다는 자료를 보시며 1970년대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학생가방생산을 본때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 자강력제일주의투사로 키우시며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이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로동계급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억척으로 다져주시며 자기 힘으로 기적을 창조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찾으시는 일터마다에서 대중에게 자력갱생의 정신을 심어주시며 자강력을 증대시키고 끊임없이 분출시키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조선의 로동계급이 기적과 위훈을 수놓아올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로동계급은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만난을 웃으며 뚫고나가는 자강력제일주의의 투사로, 사회주의건설을 줄기차게 다그쳐나가는 힘있는 창조자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다.

하나의 제품을 보시면서도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리마타일공장을 찾으시였을 때 있은 일이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연마직장도 돌아보시였다.

생산주로에 전시되여있는 미정석과 인조대리석들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공장의 책임일군은 하나의 제품을 가리켜

드리며 이 제품이 이번에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것이라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일군이 올리는 보고를 받으시고 몹시 반가우신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반색하시며 제품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100여차례의 시험끝에 마침내 이런 훌륭한 미정석을 만들어냈다고, 당에서 준 과업을 어떻게 하나 무조건 수행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한 그 정신이 좋다고 이들의 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나의 제품을 보시면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적수준을 압도하는 건재품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곳 로동계급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6월 어느날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장을 돌아보시며 깊이 관심하신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공장종업원들에 대한 원격강의와 그들의 학습정형이였다.

원격강의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곳에 나와있는 한 대학의 일군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민무장화라는 말이 있는데 원격강의실에서 원격교육을 받는것을

전민학습체계라고 하여야 할것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전민학습체계, 조용히 그 부름을 외워보며 흥분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교육을 현장에 접근시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착, 여기에는 전체 인민을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준비시켜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며 그 힘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애국자공장, 멋쟁이공장

주체103(2014)년 8월 어느날 천리마타일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장실험실앞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한 일군이 그곳이 현장실험실이라는데 대하여서와 공장기술자들이 자체로 접착제생산설비도 조립하고 새 제품개발도 한데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석재도 연구하여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도 높일 결심을 아뢰이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욕심이 보통이 아니라고, 책임일군이라면 응당 일욕심이 높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직장에 제품개발과 원료분석을 위한 현장실험실을 꾸려놓은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성수가 난 일군이 공장의 현장실험실에서 콩크리트의 강도세기도 측정하면서 대상건설장들에 여러가지 질좋은 타일을 생산보장해주고있다고 또다시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접착

제생산설비들을 자체로 설치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우리는 남에게 의존할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기술로 모든 일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철울타리생산공정이 꾸려진 곳에 이르시여서도 오래도록 생산공정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이 공장에서도 자체로 철울타리를 생산하고있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생산한 철울타리로 원료보관장과 제품보관장소를 꾸려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은 정말 애국자공장, 멋쟁이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애국자공장, 멋쟁이공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값높은 평가속에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명실공히 자기의것이라고 자부할수 있는 훌륭한 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것을 바라시는 깊은 뜻이 담겨있었다.

값높이 평가해주신 우리 식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개건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업적인 방법으로 강냉이를 가공하여 당분을 얻어내는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완벽하게 확립해놓음으로써 식료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여러가지 영양학적, 위생학적요구를

만족시키는 각종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상품도안도 멋있고 포장도 잘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과분한 평가의 말씀에 공장일군들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사실 공장의 전변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혈과 로고속에 이루어진것이였다.

공장현대화에서 기본은 국산화를 완벽하게 실현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설비들을 우리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 설치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분도,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의 생산공정을 새롭게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신분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마련된 성과이건만 평양곡산공장의 현대화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95%이상 보장한것이라고,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쯘하게 차려놓았는데 하나와 같이 미남자처럼 생겼다고, 최근년간 당의 국산화방침관철에서 식료공업부문이 앞장에 섰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해주시였을 때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였다.

이날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여기서 중핵적인 문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이라는 숭고한 뜻이 담겨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깊이 새기며 마

음속으로 뜨겁게 외웠다.

우리의 설계, 우리의 손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것이 마음에 들고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다고, 온 나라에 국산화를 중핵으로 하는 우리식 현대화의 불바람이 세차게 불어치는 속에서 평양곡산공장이 내놓고 자랑할만한 공장으로 보란듯이 전변되였다고, 이 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본보기로 내세울만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1월 어느날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장용기 하나를 놓고서도, 상표도안을 보아주시면서도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마음속에 간직된 자력갱생의 신념을 헤아려주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공장에서 자체로 일떠세운 문화후생시설을 돌아보실 때에는 이 공장에서 모든것을 자체로 하고있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따뜻이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은 당정책관철에 앞장선 공장, 자력갱생하는 공장, 인민들이 좋아하는 공장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깨우쳐주신 상표문제

주체104(2015)년 7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한 공장의 제품진렬실을 돌아보실 때에 있은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람들이 이 공장 제품을 제일 좋아한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견본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한 제품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일군들은 혹시 제품에 미흡한 점이라도 있는가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표가 문화적이면서도 친절하게 되지 못한데 대하여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상표는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에 맞게 고상하면서도 문화성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무리 영양가높고 맛있는 음식도 눈맛이 있어야 빛이 나는것처럼 쓸모있고 질좋은 제품도 포장과 상표가 멋있어야 그 품위가 높아진다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일군들은 인민이 리용하는것이라면 제품의 질은 물론 상표까지도 최상의 수준이여야 한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새기며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다지였다.

하나의 선반을 보시고

주체104(2015)년 7월 어느날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가공직장에도 들리시였다.

어느 한 기대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체로 개조하고있는 선반이라고 말씀드리였다.

아직 도색도 하지 못한 선반을 가리켜드리는 일군의 심정은 말할수없이 죄스러웠다.

다른 기업소들처럼 훌륭하게 꾸려진 현장에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갖추어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였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오히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선반을 손수 쓸어보시며 이 직장에서 선반을 자체로 현대적으로 개조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떻게 하나 당의 의도를 받들어나가려는 이곳 기업소 로동계급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며 하시는 말씀이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이 기업소를 도와주자고, 설비를 현대적인것으로 다 바꾸어주자고 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높은 정신력을 가지고 당을 받들어온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업어주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시며

주체104(2015)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정성제약종합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중나온 일군들의 손을 정답게 잡아주시며 수액공장이 현대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지난 시기보다 10배에 달하는 여러가지 수액약품을 생산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찾아가는 곳곳마다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을 볼 때마다 혁명하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업어주고싶은 심정이며 그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업어주고싶은 심정!

정녕 그것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더 많은 의약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또 하나의 크나큰 사랑이고 믿음이였다.

높이 내세워주신 자력갱생의 정신

주체105(2016)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성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찾으시였다.

전시장에는 새형의 80hp뜨락또르와 5t급화물자동차, 새형의 뻐스, 다용도, 다기능화된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비롯한 수많은 기계

설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만든 80hp뜨락또르를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머니당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한 공장로동계급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리시며 새형의 뜨락또르를 보고 또 보시고 몸소 운전좌석에까지 오르시여 그 성능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형의 뜨락또르가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정말 멋있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라고, 모든 기술적성능들이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선 능력이 큰 새형의 뜨락또르를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80hp뜨락또르는 자력갱생의 첫 신호탄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우리식으로 새형의 뜨락또르를 만들어냄으로써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큰걸음을 내짚었다고 치하하시였다.

너무도 분에 넘치는 평가의 말씀에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사실 하나의 농기계를 창안제작해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그 전해의 8월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농기계전시장을 찾으시여 오래도록 농기계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문제를 두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후에도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거듭거듭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이곳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견본모방의 길이 아니라 개발창조의 길을 택하고 다기능화, 다용도화된 기계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안제작할수 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바치신 그 모든 심혈과 로고는 묻어두시고 조선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자력갱생의 정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강인담대한 배짱을 억만금의 재부에도 비길수없이 값진것으로 보시며 그리도 높이 평가해주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농기계부문에서 새로 제작한 각종 농기계들도 보아주시며 자력갱생을 해도 우리식으로 하고 현대화를 해도 우리 사람들의 체질과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농기계들을 우리자체로 만든것은 자력갱생의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출발점으로 된다고 다시금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바로 여기에는 금성뜨락또르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만이 아닌 조선의 로동계급이 앞으로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자기가 맡은 일을 제힘으로 끝까지 해나가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진짜 성공한 현대화

주체105(2016)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 꾸려놓은 종합조종실에도 들리시였다.

공장에 구축된 통합생산체계를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해당 일군이 한 측정장치에 대하여 해설해드리면서 기대공들이 저저마다 자기 기대부터 먼저 설치해달라고 한다는데 대하여서도 말씀드리였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현대화는 로동자들이 설비를 운영해보고 좋다고 평가하는것이 진짜 성공한 현대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기쁨속에 들어주신 자랑

주체105(2016)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성합성가죽공장 제품견본실을 돌아보실 때였다.

그곳에는 합성가죽을 리용하는 전국의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갖가지 제품견본들, 이 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이 지혜를 합쳐 개발한 여러가지 합성가죽제품들이 진렬되여있었다.

만족한 시선으로 각이한 제품견본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진렬탁앞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탁에 놓여있는 혁띠를 손에 드시고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끝부분을 꺾어보시였다. 유연성을 가늠해보시려는것이

였다.

동행하던 공장지배인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이 혁띠가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이때 곁에 있던 다른 일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저 동무가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니 저렇게 자랑하는것같다고 말씀드렸다.

그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지배인이 이 혁띠가 추운 겨울에도 쓰기 편리하여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할것은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자랑할것은 하여야 한다!

단순히 자식들의 자랑을 너그러이 받아주는 친어버이심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였다. 거기에는 자체의 원료를 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제품을 끝없이 늘이며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깊은 뜻을 담아 찍으신 기념사진

주체105(2016)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현지를 찾으시였다.

이날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만족속에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에 과학자들이 큰일을 하였다고 거듭 치하하시다가 문득 일군들에게 촬영은 어디서 하려고 하는가고 물으시

였다.

공장에 도착하시여 생산공정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식의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이 일떠선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기념사진촬영을 하자고 이미 말씀하시였던것이다.

기념사진을 어데서 찍을것인가를 생각해오던 한 일군이 과학기술보급실마당에서 하였으면 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와는 의견을 달리하시며 기념사진을 아크릴산정류탑을 배경으로 찍자고 하시면서 그래야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아크릴산정류탑, 그 탑은 조선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된타격을 안기고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설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준 자력갱생의 창조물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아크릴산정류탑을 보고 또 보시며 거기에서 조선로동당의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의 충성심을 보시였고 보다 더 비약할 화학공업의 창창한 래일을 확신하신것이였다.

잠시후 생산공정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크릴산정류탑앞에서 주체의 신념과 배짱으로 아크릴산공업을 개척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아크릴산정류탑을 배

경으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렸다.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 책임일군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을 잘하라고, 자신께서는 화학공업성과 칠감공장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당과 조국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나가리라고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아크릴산정류탑을 배경으로 찍어주신 사랑의 기념사진.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력자강,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주체식의 아크릴산공업창설에 바친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고심어린 탐구와 불같은 헌신이 조국력사에 길이 전해지도록 해주신 뜻깊은 기념사진이였다.

못내 기뻐하신 사연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한 종합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직장의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도로 정보화, 지능화된 생산 및 경영활동의 통합생산관리체계도 손색없고 자동화, 무인화, 흐름선화된 생산공정들이 볼만하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왜 그처럼 기뻐하시

는지 미처 다 알수 없었다.

잠시후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이 현대화된 공장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음성이 또다시 장내에 울려퍼졌다.

이제는 로동이 그대로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뻐하신것은 단순히 현대화된 공장을 보시게 된 기쁨때문만이 아니라 훌륭한 생산조건과 생활환경속에서 웃음꽃을 피워갈 로동계급의 모습을 그려보시였기때문임을 절감하였다.

샘물포장에서도 세계적수준을 압도하여야 한다고

주체105(2016)년 9월 어느날이였다.

룡악산샘물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룡악산샘물공장은 룡악산샘물이 대단히 좋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떠세워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샘물공장이 건설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공장이름을 몸소 《룡악산샘물공장》이라고 명명해주시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유리병으로 포장한 제품들을 가리키시며 제품견본실에 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진렬해놓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공장일군의 얼굴에도 기쁨의 미소가 피여올랐다. 그런데 잠시후였다.

유리병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샘물을 넣은

유리병은 모양도 각이하고 색갈도 시퍼렇다고, 이런 색갈의 유리병에 샘물을 넣으면 안된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영문을 알수 없어하는 표정이 력력한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색갈이 있는 유리병에는 맥주나 탄산수를 넣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샘물포장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우리는 샘물포장에서도 세계적수준을 압도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에는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도, 포장을 하나 하여도 인민들에게 차례지는 모든것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었다.

창조와 건설의 참의미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한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에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휴양소에 온것으로 생각할것같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못잊을 추억들이 갈마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을 기계제작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내세우시려 거듭되는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현대화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관심하고 지도해주시였던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흡한 점이라도 있을세라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생산구역과 생활구역, 교양구역이 명백히 구분되여있는 모든 생산건물은 물론 문화후생시설까지도 어제와 오늘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완전한 때벗이를 한 공장은 말그대로 로동자들의 궁전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진행하는 창조와 건설은 철두철미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였다.

우리의것을 먼저 찾게 해야 한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이불생산현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현대적인 설비마다에서 여러가지 문양을 수놓은 이불들이 필필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기쁨에 넘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처녀총각들이 시집장가갈 때 그들에게 이런 멋있는 이불들을 안겨주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경공업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경공업공장들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질적으로 잘 만들어

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공업공장들에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팔리지 않고 인민들이 찾지 않는다고 하여 생산을 걷어치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인민들의 마음에 드는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우리 인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들보다 우리 나라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먼저 찾게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먼저 찾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에는 언제나 인민의 요구를 첫자리에 놓고 하나의 경공업제품을 생산해도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가 어려있었다.

기쁨속에 보아주신 생산공정

주체106(2017)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현장을 돌아보시며 공장에서 자체로 설비들을 만들어 여러가지 제품을 꽝꽝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필접이기앞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공장일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이 설비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체로 만든것이라고 자랑을 담아 말씀드리였다.

한동안 필접이기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필접이기가 공장에서 자체로 만든 설비이면 좋

다고, 이 공장에서는 공장건물들도 자체로 건설하고 설비도 자체로 만들어 쓰고있다고 하시며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마음으로 일하였을뿐인데 자기들의 성과를 이렇듯 높이 치하해주시니 일군들은 몸둘바를 몰랐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공정을 기쁨속에 둘러보시며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나가는 공장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나가는 공장, 새겨볼수록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던것이다.

생산현장에서는 여전히 기계들의 동음이 고르롭게 울리고있었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단순히 기계소리가 아니라 모든것을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 식으로 해나갈 때 휘황한 래일이 앞당겨진다는 고귀한 철리를 새겨주는 크나큰 메아리로 들려왔다.

정규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의 자욱은 평북땅의 어느한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언제인가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의 운영계획을 보아주시면서 동행한 일군에게 지금까지 과학기

술보급실을 몇명이나 리용했는가고 물으시였다.

사실 이곳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과학기술보급실을 보여드린 다음 운영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있었다.

이에 대하여 알게 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런 형식주의는 필요없다고, 건물이나 짓고 형식이나 갖추어놓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1층과 2층에 꾸려진 열람실을 돌아보시면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는것을 누구나 무조건해야 하는 사업으로, 정규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생산전투와 같이 여기고 이 사업을 정상화, 생활화할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리용을 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정규적인 사업으로.

이날 일군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주의의 밝은 래일을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혁명승리의 동음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용천을 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학생용가방

을 보아주신데 이어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광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리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유연창대직기, 고온고압로라염색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가방용천생산공정에 갖추어진 모든 설비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창조적인 지혜와 열정이 깃든 명실공히 우리의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 자력갱생의 동음은 머지않아 세상만복을 누리며 살게 될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혁명승리의 동음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혁명승리의 동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길에 혁명의 승리적전진도, 휘황찬란한 미래도 있다는 철리를 깊이 절감하였다.

생산능력을 현재의 3배로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현장에 쌓여있는 학습장속지들을 보게 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제책직장생산현장에 학습장속지들을 쌓아놓았는데 굉장하다고 하시면서 유치원생과 소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의 학습장속지를 몇매로 하여야 한다는 국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여 년간 수천만권의 학습장을 생산할수 있으면 대단하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일군들모두가 뜨거움을 금치 못하는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생산능력을 3배로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생산능력을 현재의 3배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아이들과 학생들에게만은 최상의 질이 담보되는 학습장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공장의 생산목표를 새롭게 정해주시였다.

이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질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안겨주시려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후대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우에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사랑의 전설을 새겨가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

주체107(2018)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제약공장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 예방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항시적으로 필요한 대중약품, 상비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 약품가지수를 보다 늘이고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세계적인 제약공업발전추세를 잘 알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포장용기들의 위생성, 문화성, 실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과 함께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도록 상표도안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잘 만들데 대한 문제…

인민들에게 효능높고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의약품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제약공장의 개건현대화는 단순히 의약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이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 느끼도록 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투쟁, 보람찬 투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성스러운 투쟁, 보람찬 투쟁!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한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에 자신의 한몸을 다 바쳐나갈 맹세를 다지였다.

로동계급의 창조본때가 마음에 든다시며

주체107(2018)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형의 궤도전차시운전을 지도하시기 위해 현지에 나오시였다.

시운전을 지도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궤도전차를 손색없이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자력갱생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번에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야말로 자력갱생의 산아이라고, 우리 로동계급의 창조본때가 마음에 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은 로동계급에게 주시는 최상최대의 표창이고 믿음이였다.

궤도전차에서 내리시여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궤도전차가 확실히 잘 생겼다고 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로동자들이 새형의 궤도전차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였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를 타보았는데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금방석과 바늘방석

주체107(2018)년 8월초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례년에 없는 폭염이 계속되던 때여서 밤이라고는 하지만 바깥 공기는 여전히 숨막힐듯 하였다.

그런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이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날 낮에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아주시였건만 인민이 리용하는데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또다시 귀중한 시간을 내시였던것이다.

먼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무궤도전차가 있는 곳으로 향하시였다.

한폭의 그림같이 유정하게 안겨드는 무궤도전차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는 낮에 보아도 멋있고 밤에 보아도 멋있다고 하시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객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든것이여서 더더욱 애착을 느끼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신 무궤도전차는 수도의 밤거리를 누비며 기운차게 달리였다.

인민들이 앉을 평범한 좌석에 자리를 잡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차의 기술적특성지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몸소 가늠해보시였다.

소음과 진동은 어느 정도인가, 내부환경과 의장품들의 문화성과 질은 제대로 보장되였는가.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모든것을 료해하고나시여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반년전에 만든 무궤도전차보다 질이 월등하게 개선된것은 이 공장 로동자들을 비롯한 수도려객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각성하고 분발하여 달라붙었기때문이라고, 우리 로동계급의 창조적지혜와 정신력을 발동시키고 높은 리상과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하게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손으로 훌륭한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만들어 출퇴근하는 수도시민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사회주의웃음소리를 싣고 달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생각이 깊어졌다.

누구나 무궤도전차, 궤도전차라고 하면 려객수송을 위한 운수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고 크나큰것으로 간직되여있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기에,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줄수 있겠는가 자나깨나 마음쓰시는분이시기에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인민들이 앉게 될 금방석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금방석!

그 부름을 조용히 외워보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하신 말씀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면 볼수록 수도려객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당에 대한 열렬한 충정심과 높은 애국심이 깊이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지금처

럼 무더운 삼복철이나 추운 겨울에 인민들이 뻐스정류소에 서있는 것을 볼 때면 승용차를 타고가는것이 바늘방석에 앉은것같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목이 꽉 메여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을 위한 거창한 재부들을 끊임없이 마련해주시면서도 생활의 단 한면에 비낀 인민의 불편을 헤아려보시고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으로 강행군속도를 더욱 높이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인민들이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그 별을 따주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투쟁강령이라고 하시며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생산에 커다란 심혈을 쏟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때로는 일군들의 안목도 틔워주시고 때로는 조립중에 있는 무궤도전차에 오르시여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이끌어주시였다.

정녕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는데서 혁명하는 멋, 인생의 가장 큰 희열을 느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 낳은 또 하나의 금방석인것이다.

어느덧 무궤도전차의 시운전은 끝났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다시금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를 타보

았는데 대단히 만족하다고, 오늘은 년중 기분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에 몸을 싣고 웃음꽃을 활짝 피울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의 밤거리가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였다.

깊이 새겨주신 복무관점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그날은 중복을 이틀 앞둔 7월 25일이였다.

한낮의 대기온도는 40℃를 가까이하였다.

자나깨나 소원하던 꿈만 같은 시각을 맞이하였건만 한해치고도 제일 무더운 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일터에 모신 공장일군들의 마음은 저으기 송구스러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TV방송을 통하여 소개되는것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것을 들어보아도 그렇고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질좋은 제품들을 꽝꽝 생산하면서 경영활동을 아주 잘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과자1작업반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경질과자들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흐름선을 타고 줄줄이 나오고있었다.

공장일군들은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먼길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꽝꽝 생산해내고있는 흐뭇한 광경을 보여드리게 된 긍지와 자부심에서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만족하신 시선으로 생산공정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질과자 한개를 집어드시고 유심히 살펴보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저도모르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곁으로 바싹 다가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아해하는 일군들에게 경질과자의 량면에 색이 곱게 들지 않았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직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봉사단위들은 물론 소비자들속에서도 과자의 색갈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적은 없었기때문이였다. 더우기 이것은 오래동안 현장에서 제품을 다루어온 생산자들도 느끼지 못한 문제였다.

공장의 제품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다는데로부터 만족감에 사로잡혀있던 일군들이여서 받아안은 충격은 자못 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는 계속되였다.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이 즐겨찾는 갖가지 식료품이 쏟아져 나오는것을 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못내 기뻐하시였다.

즉석국수공장을 돌아보시면서는 지배인이 일욕심이 많다고, 그

런 욕심은 좋은것이라고 하시였고 진공포장을 하는 고기가공반 로동자의 작업모습을 보실 때에는 공장에 없는것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생산현장들에 그득히 쌓여있는 제품들을 두고서는 이런 공장은 처음 본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어디서 특별히 도움을 받는것도 아니지만 소문없이 경영활동을 잘하고 생산을 확대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것이 그리도 대견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성과를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옷깃이 땀에 젖어드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20여개나 되는 공장의 생산공정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복도로 나서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다시 화제를 경질과자의 색갈문제에로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무래도 과자구이로가 불비한것같다고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과자굽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이로안의 온도와 반죽형성물이 로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술적으로 잘 조절하여 지금보다 과자의 색이 더 고우면서도 고르롭게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그처럼 오랜 시간 현장을 돌아보시는 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중에는 과자색갈문제가 좀처럼 가셔지지 않고

있었던것이다.

사실 그 경질과자의 색갈차이는 맛에까지 크게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자그마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드팀없는 신조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기에 크지 않은 과자의 색갈차이도 무심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해결방도에 대해서까지 깊이 생각하신것이였다.

그제야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찌하여 금방 구워낸 경질과자의 맛도 보아주시고 50℃가 넘는 로실에까지 들어가보시였는지 그 숭고한 의도가 어려와 눈굽이 젖어들었다.

이렇게 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녀가신 후 공장에서는 곧 과자구이로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였으며 일군들은 비로소 과자의 색갈차이가 로의 불비한 개소에 원인이 있었다는것을 발견할수 있었다.

북받치는 경탄과 흥분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자욱을 되새길수록 세상에서 제일 좋은 조선인민에게는 이 세상 가장 훌륭한것을 안겨주어야 하며 인민들에게 차례지는 제품은 완전무결한 명제품이 되여야 한다는 그이의 높으신 뜻을 일군들은 깊이 새기였다.

제품진렬실에도 들리시여

주체108(2019)년 5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와 제품생산능력조성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최근 공장에서 생산한 정밀기계설비들의

성능도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국산화성과를 보여주는 제품진렬실에도 들리시였다.

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십종의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였으며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고 쓸모없이 버리던 페기품들을 재생하여 생산에 리용함으로써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고있었다.

전시된 제품들을 보아주시며 이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미 마련되여있는 경제토대와 잠재력,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생산과정에 나오는 각종 부산물과 페기물들을 모두 회수하여 재자원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에서 일군들은 재자원화이자 열렬한 애국심의 발현이며 바로 이런 애국의 마음을 가질 때 높은 생산실적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특제품, 명제품으로 만들어 완전히 독점하여야 한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들쭉음료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멋있다고, 삼지연에 들쭉음료공장을 꾸리기 정말 잘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제품창고에도 들리시였다.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제품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품창고에 공장에서 생산한 들쭉제품들이 꽉 차있다고, 마치 기관단총의 탄창에 총알이 빼곡이 재워져있는것같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차례질 식료품들의 맛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도 세심히 마음쓰시며 수행한 일군들에게 제품들을 하나씩 맛보고 어떤가 평가해보게 하시였다.

이윽하여 제품을 맛본 한 일군의 이야기를 기쁨속에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에서는 들쭉제품을 특제품, 명제품으로 만들어 완전히 독점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삼지연의 이름을 날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특제품, 명제품으로 만들어 완전히 독점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새겨안는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 자기 단위의 얼굴이 살아나는 독점지표들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쾅쾅 생산해낸다면 인민들의 생활은 윤택해질것이였다.

삼지연들쭉음료공장을 찾으시여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에는 명실공히 조선의것, 조선의 제품으로 꽉 들어찬 아름다운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기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있으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온 나라 경공업공장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이 담겨져있다.

일군들의 때이른 기쁨

주체111(2022)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의료기구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 훌륭히 꾸려진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바로 전날 희천시에 자리잡고있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침대분공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도 의료용침대를 생산하고있는데 그 공장에 가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것을 보겠다고 하시였던것이다.

공장일군들의 얼굴에는 공장에서 생산한 의료기구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릴수 있으리라는 자부심이 은근히 내비치고있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3년전 두번째로 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의료기구들을 발전된 나라들에서 생산하는 설비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을 받들어 공장에서는 의료설비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생산한 의료설비들을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일군들의 기쁨은 때이른것이였다.

총조립직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공장에서 새로 만든 의료설비와 기구들을 하나하나 동작시켜 보시였다. 그러시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치료를 받는 환자의 심정에서 의료설비와 기구들의 사소한 부족점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에는 조선인민들에게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안겨주고싶어하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심정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복의 무더위와 장마비, 한겨울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그 길에서 언제나 로동계급을 먼저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가신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찾고찾으시는 수많은 공장들과 그 자욱마다에 꽃핀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들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아끼고 사랑하신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조선의 로동계급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며 그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이야말로 이 나라의 로동계급이 안겨살 친어버이품이다.

로동계급을 찾으신 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1절에 즈음하여 어느한 공장의 로동계급을 찾으신 날은 주체101(2012)년 5월 1일이였다.

전 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공장로동계급의 감격과 격정은 참으로 컸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계의 성능이 대단히 높고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기계제품을 제작해내고있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날 공장에 새로 일떠세운 로동자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영과 물놀이를 하고있는 로동자들의 모습도 즐겁게 바라보시고 리발실에 들리시여서는 잘 꾸렸다고, 리발을 하고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서 저저마다 리발을 해드리겠다는 리발사들의 격정에 넘친 청에 다심한 은정을 덧놓아주시였다.

로동자들이 리용할 봉사설비들과 체육기재들의 질을 가늠해보시며 로동자들이 좋아하겠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거듭 이야기하시였다.

꽃주단을 펴주고싶다 하시며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한 공장에 새로 꾸려진 강성원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먼저 1층목욕탕을 돌아보시고 수영장과 물놀이장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물놀이장 한켠에 설치되여있는 초음파물안마기수감부앞으로 다가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감부에 손을 가져가시자 파란 불빛이 반짝이더니 물속으로 폭포같은 물줄기가 살같이 뿜어나왔다.

물안마를 받으며 피로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로동자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손을 물에 담그시고 물온도가 알맞춤한가도 가늠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로동자들이 조용한 곳에서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면 정말 좋아하겠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공장을 찾아주시였으며 이 공장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하시였는데 자신께서도 꼭같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 로동계급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용실과 리발실, 전자오락실 등도 일일이 돌아보시며 다심한 정을 기울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워주시고 자신께 넘겨주신 우리 로동계급인데 이 공장 로동계급을 위하여 공장구내에 꽃주단을 펴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다시금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부흥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신 주체102(2013)년 6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번듯하게 꾸려진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문화후생시설을 흠잡을데 없이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로동계급이 제손으로 일떠세운것이고 로동자들이 마음껏 리용하게 될 문화후생시설이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렇듯 만

족해하신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기초식품공장은 로동자들의 희한한 궁전, 로동당시대의 맛이 나는 공장, 애국주의가 차넘치는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올린 소박한 청을 잊지 않으시고 새로 건설된 문화후생시설의 이름을 《부흥원》으로 부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공장의 녀성근로자들에게 보내신 축하의 인사

주체102(2013)년 11월 16일 어머니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명절분위기로 흥성이던 이날도 인민군대의 어느한 식료공장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뜻깊은 어머니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에 모시게 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격정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머니날을 맞으며 자기들의 일터에 그이께서 꼭 오실것만 같아 종업원들이 스스로 현장에 나와 생산을 다그치고있다고 하는 공장일군들의 말을 스스럼없이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어머니날을 맞는 공장의 녀성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축하의 인사, 그것은 조선녀성

들이 한가정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조국과 혁명의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애국자, 녀성혁명가들로 한생을 빛내여나가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있는 따뜻한 축하의 인사였다.

배로 추가된 회의참가인원수

주체102(2013)년 12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의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올해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기때문에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고, 이번 수산부문 열성자회의를 통하여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크게 떠들도록 하자고 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이번에 사업소에서 수산부문열성자회의에 몇명이 가게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50명이 참가하게 되였다는 보고를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0명이면 일없겠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정한 물으심에 지배인은 참가인원이 그렇게 규정되다보니 일을 많이 한 성원들이 적지 않게 빠졌다고 하면서 100명정도이면 충분할것같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배인이 회의에 100명이 참가하게 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고마움에 넘쳐있는 사업소의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이곳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는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에게 신선하고 맛좋은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게 된것이 그리고 기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응당할 일을 한 그들에게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이곳 수산사업소에서는 100명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선인민군 제1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에 참가하게 되였다.

배로 추가된 회의참가인원수!

진정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결사관철한 인민군대의 어로전사들에게 안겨주신 또 하나의 값높은 표창이였다.

《단풍마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일떠선 1월8일수산사업소가 조업을 앞두고있던 주체103(2014)년 4월 어느날이였다.

수산물생산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수산사업소를 기쁨속에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합숙을 어로공들의 정든 보금자리답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꾸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특히 어로공들이 살게 될 다층주택지구를 은하과학자거리처럼 멋있게 건설했다고 기뻐하시며 《단풍마을》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였다.

물고기가공장에서 하신 인사

주체103(2014)년 11월 18일 이른아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리는 제18호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다.

당시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새기고 힘찬 투쟁을 벌려 물고기대풍을 마련하고있었다.

물고기폭포 쏟아지는 부두와 만선기 날리며 돌아온 《단풍》호 고기배,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이 가득 쌓인 랭동고를 만족속에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정책을 교과서의 체계를 외우듯이 한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넋과 피와 땀으로 결사관철한 전위투사들이라고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절임창고로 향하시였다.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앞에 또다시 흐뭇한 광경이 펼쳐졌다.

야외물고기가공장에는 방금 잡아들인 물고기가 무드기 쌓여있었는데 녀성들이 한창 선별작업을 하고있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로 지배인이 다가서며 그들이 사업소 종업원들과 가족들이라고 말씀올리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자기들의 작업장에 모신 사업소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마음은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였다.

산같이 쌓은 그리움을 터치며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싶은 심정이였지만 그들모두는 작업현장이 험하고 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귀중한 혁명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키면 어찌하랴 하는 생각으

로 마음을 애써 누잦히며 눈물을 머금은채 계속 일손을 다그쳤다.

바로 그 순간에 만사람을 놀래우는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들모두에게 먼저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는것이였다.

동행한 사업소의 일군들이 너무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는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고기가공장에서 녀성들이 물고기를 가공하느라고 수고한다고, 작업하는 녀성들이 수산사업소 종업원가족들이라고 하는데 가족들까지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떨쳐나섰다고, 수산사업소 종업원가족들이 물고기를 잡아왔다고 하면 모두가 스스로 달려나와 물고기운반과 가공을 맡아한다고 하는데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성실한 땀을 바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마디마디 곡진한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쳐들어보이시며 수산사업소의 종업원들과 가족들은 모두가 투철한 당정책관철자, 애국자들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순간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물고기가공장에서 일하던 녀성들모두가 참고참던 눈물을 쏟으며 일제히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자애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따라서는 그들에게 다시, 또다시 정깊은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때 물고기가공장에서 일하던 녀성들은 모두가 온 한해 바다에서 살다싶이 하는 남편들과 아들들에게 편지를 한장 써도 집각

정은 하지 말고 우리 원수님 기뻐하시게 물고기만 많이 잡아달라는 당부를 적어보내던 평범한 안해들과 어머니들이였다. 집중어로전투만 개시되면 스스로 사업소에 달려나와 철야작업을 벌리던 편제없는 종업원들이였다. 그때도 김장철이였건만 그들은 자기 집 김치독은 후에 채워도 병사들에게 보내줄 물고기부터 사업소랭동고에 가득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떨쳐나섰었다.

바로 그 마음들이 그리도 소중하시였기에, 그들이 바쳐온 땀과 노력을 속속들이 헤아려보시였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토록 뜨거운 인사를 거듭거듭 보내주신것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 가족들이 오늘 자신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시면서 물고기가공장에서 일하던 녀성들까지 다 불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대번에 헤아려보신 부족점

주체103(2014)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한 식료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깊이 관심하신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산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종합지령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이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조

종탁의 아래부분을 가리키시며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에는 의자를 조종탁앞으로 바투 가져가시였다.

모두가 영문을 알수 없어하는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의자에 앉으시여 팔을 조종탁우에 올려놓아보시면서 무엇인가를 가늠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런 책상에 마주앉아 오랜 시간 일하느라면 다리가 아플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책상밑을 둘러막다나니 지령원들이 다리도 펴지 못하고 불편한 자세로 일하고있는것을 대번에 헤아려보신것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책상웃판을 사람이 앉는쪽으로 좀 더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책상을 다른것으로 교체해주어야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때까지 공장일군들은 물론 이곳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중 그 누구도 지령원들이 불편을 느낄수 있다는데 대하여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지령실을 돌아보시는 길지 않은 그 시간에도 그들이 느끼게 될 자그마한 불편까지도 대번에 헤아려보시고 부족점을 바로잡도록 하시였다.

류다르게 찍으신 기념사진

주체104(2015)년 새해벽두의 어느날 평양시버섯공장(당시)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면모를 손색없이 갖춘 버섯생산기지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날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자신의 심정을 터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업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질성형장앞의 경사면에 있는 턱에 앉으시여 이 자리가 좋다고, 오늘 사진이 특색있게 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은 사진을 촬영대에서 찍지 말고 공장구내를 배경으로 특색있게 찍자고, 종업원들이 야외재배장 앞계단에만 서지 말고 경사지에도 서야 하겠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인민을 위한 버섯생산기지가 마련된것이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렇듯 류다른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던 것이다.

비발속에서 찍으신 기념사진

주체105(2016)년 6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날 공장의 여러곳을 기쁨속에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당에 나오시였을 때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하늘을

쳐다보고있었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였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에서는 억수로 비가 쏟아지고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러던 그들에게 감격의 소식이 전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장종업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하시면서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기다리고계신다는것이였다.

순간 공장종업원들은 뜨거운 격정으로 눈물흘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종업원들이 마지막 한사람까지 다 모일 때까지는 퍼그나 시간이 걸리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속상해하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종업원들이 빠짐없이 다 모일 때까지 억수로 퍼붓는 비발속에서 옷자락과 신발이 젖어드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래동안 기다려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평양곡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렇게도 소원하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기다려 찍으신 기념사진!

여기에는 평양곡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주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할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두번이나 들어주신 소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6월 20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공장현지지도를 마치시면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고 열광의 환호성이 터져오르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얼마쯤 걸음을 옮기시였을 때였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았는지 정신없이 달려오는 공장탁아소, 유치원 보육원, 교양원들의 모습이 구내길에 나타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기념사진을 한번 더 찍어주시였으면 하는 청을 올리던 공장일군은 그만 말끝을 흐리고말았다.

그날따라 무더위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공장의 곳곳을 돌아보시고 종업원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옷이 땀으로 화락하게 젖어있었던것이다.

일군이 송구스러워 어쩔줄 몰라하는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달음질쳐오는 녀성종업원들을 보시며 기념사진을 찍지 못한 탁아소, 유치원 보육원, 교양원들과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그들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되였다.

주체106(2017)년 1월 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을 돌

아보시면서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이때 동행한 한 일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공장을 찾으시였던 지난해 6월에 이 작업반의 일부 동무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곳에 가있다나니 기념사진을 찍지 못하였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의 이야기에서 종업원들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시고 이불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가운데 지난해에 자신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지 못한 동무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친히 사진찍을 위치까지 정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울지만 말고 사진을 찍을수 있게 자신의 앞에 앉기도 하고 옆에 서기도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행복에 울고웃는 이불작업반 로동자들의 뜻깊은 기념사진이 태여나게 되였다.

깊이 관심하신 문제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류원신발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장을 돌아보시며 깊이 관심하신 문제가 있었다.

로동자들의 건강과 로동조건에 대한 문제였다.

어느한 생산현장에 들리시여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현장의 배풍능력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죄책감으로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작업의 특성으로 하여 작업장에 가스냄새가 조금 나는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해오던 그들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품생산에 앞서 생산자대중의 리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며 다심한 정을 기울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을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있어서나 종업원들의 로동조건에 있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처럼 생산보다도 로동자들의 건강과 로동조건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던것이다.

로동자들이 받아안은 연회상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식사실에도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사실이 정말 멋있다고, 식사실이 연회장이나 결혼식식당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이번 5.1절을 맞으며 연회를 크게 하여야 하겠다고 정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날 취사장과 야외휴식장도 돌아보고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다시금 5.1절에 로동자연회를 온 나라가 들썩하게 잘 차려줘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을 위한 연회를 자신께서 차려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로동자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가 어려와 감격에 목이 메여올랐다.

이렇게 되여 그해 5월 1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속에 5.1절경축 로동자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정녕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 펼쳐졌던 5.1절경축 로동자연회는 평범한 근로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조선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감격적인 화폭이였다.

로동자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찌는듯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 돼지공장을 찾으시였다.

비육사 1호동의 생산현장에 들어서시여 비육사에도 돼지가 꽉 찼다고, 비육사에 돼지가 와글와글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시 돼지공장에서는 돼지냄새가 난다고 흔연히 말씀하시였다.

공장구내를 둘러보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유기질복합비료직장으로 가자고 하시였다.

순간 동행하던 일군들은 주춤하지 않을수 없었다.

유기질복합비료직장의 공기가 그리 좋지 못하기때문이였다.

일군들모두가 유기질복합비료직장에는 가지 않으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유기질복합비료직장은 돼지

배설물냄새가 세게 나기때문에 가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로동자들이 일하고있으므로 가보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유기질복합비료직장에까지 모시게 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랑하는 로동자들을 찾아 스스럼없이 생산현장에 들어서시여 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생산실적보다 귀중한것은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비를 맞으시며 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사료보관창고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어느한 작업장으로 향하시였다.

이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앞을 막아서며 공장의 한 일군이 거기에만은 들어가지 않으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통풍장치가 되여있기는 하지만 작업장의 공기가 맑지 못했던것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동자들이 일하는 곳이기때문에 자신께서 무조건 들어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작업장안으로 들어서시였다.

그리시고는 어쩔바를 몰라하는 공장일군의 마음을 눅쳐주시려는듯 공장에서 포장용기까지 자체로 생산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

라고 치하까지 해주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런 곳에서 로동자들이 일하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며 우리는 높은 생산실적보다 로동자들의 건강이 더 귀중하다고, 자금이 더 들더라도 로동자들이 신선한 공기속에서 로동을 할수 있게 하루이틀사이에 통풍설비를 더 설치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책감으로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기에 어느 단위를 찾으시여도 로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꼭꼭 들리시여 작업조건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그리도 마음쓰시는것이였다.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의 건강문제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공장에서는 지체없이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결과 신선한 공기가 항상 작업장안에 차넘치게 되였다.

생산에 앞서 관심하신 문제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강도의 어느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꿈결에도 그리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공장의 일군들은 커다란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공정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CNC화가 실현된 일터에서 흥겹게 일하고있는 로동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런데 어느한 공정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안색을 흐리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생산공정에 무슨 미흡한 점이라도 있는가싶어 눈길을 모았으나 이렇다할 문제점은 찾아볼수 없었다.

그러는 공장의 한 일군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계들에서 나는 소음의 세기가 얼마인가를 물으시였다.

순간 일군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도 기계설비가 많은 공장의 조건으로 하여 이쯤한 소음은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다보니 그 세기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는 일군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그마한 소음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군은 물론 수행성원들도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기에 공장의 현대화나 생산장성에 앞서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두고 이렇듯 세심히 마음쓰시는것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소음문제를 해결할 방도도 의논해주시였다.

일군들은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대로 기계소음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꼭 그래야 한다고 하시며 종업원들의 로동조건을 더 잘 보장해줄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기계공장이라면 흔히 있는 소음문제를 두시고도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로동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새기며 일군들은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종업원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갈 마음속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작업현장에 새로 보강된 조명체계

주체106(2017)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깊이 관심하신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산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이였다.

작업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재봉공들이 앉는 작업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설치된 레드형광등을 살펴보시였다.

일군들이 혹시 레드형광등에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자세히 보았으나 이렇다할 문제점은 없을상싶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재봉작업장에 레드형광등을 설치하였는데 재봉공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도를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재봉공들이 하루에 8시간 재봉을 하고나면 눈이 아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때 작업현장에는 이중조명체계가 세워져있었는데 그 정도면 일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여기던 그들이였다.

그 어느 일터를 찾으시여도 로동자들의 수고부터 따뜻이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기에 이렇듯 작업현장의 조명세기를 두고도 깊이 마음쓰시며 친어버이의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재봉작업장에는 삼중조명체계가 세워지게 되였다.

나라의 보배라 불러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으신것은 주체106(2017)년 5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영예군인들이 모두 건강한가, 애로되는것은 없는가를 다정히 물어주시면서 군사복무의 나날에 발휘한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오늘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투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영예군인들을 고무격려해주려고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라의 보배인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으며 건강한 몸으로 자기앞에 맡겨진 일을 잘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나라의 보배!

아까울것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

느라 피로가 겹쌓이시였건만 오히려 영예군인들의 건강을 그토록 념려해주시며 하늘같은 사랑을 안겨주시였던것이다.

몸소 합숙터전을 잡아주시며

주체107(2018)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서북변에 자리잡고있는 신의주방직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깊이 관심하신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공장합숙과 관련한 문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 합숙생들이 당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마련해준 로동자합숙을 몹시 부러워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 않게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천금같이 귀중한 혁명시간을 바쳐가시며 몸소 공장합숙터전도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동원시킬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로동계급을 위하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속에 압록강반에 로동자들을 위한 훌륭한 궁전이 일떠서게 되였다.

로동자시인에게 하신 인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에 《봄향기》화장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찾으신것은 주체107(2018)년 6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장품직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였다. 화장도구생산실의 수수한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다른 나라에서는 화장용붓을 생산하는 일을 수공업적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기계화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고 배합작업반에 이르시여서는 기술적특성이 복잡한 배합공정에 대한 작업반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 로동자들도 고도의 과학화수준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완성작업반으로 향하시였다.

그때 완성작업반의 무균화, 무진화된 작업장의 한 기대옆에는 공장에서 오랜 기간 일한 녀성로동자가 있었는데 그는 조선로동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자라난 현직작가, 로동자시인이였다.

울렁이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기대의 작업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있던 그는 갑자기 눈앞이 확 밝아지는것만 같은 느낌에 머리를 들었다.

순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작업반복도에 들어서시여 그가 일하는 곳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이 맑은 유리칸막이를 통해 안겨왔다.

녀성로동자는 그만 자신을 잊고말았다. 그는 두손을 높이 들고 나어린 처녀애마냥 발을 동동 구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만세!》하고 격정의 웨침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걸음을 멈추시였고 일행의 시선이 그한테로 쏠리였을 때 공장지배인이 그이의 곁으로 다가가 저 동무가 바로 노래 《준마처녀》의 가사를 지은 우리 공장의 로동자시인이라고 말씀올리였다.

이렇게 아뢰인 녀성지배인은 어려움도 잊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앞에서 노래 《준마처녀》의 처음 몇소절을 조용조용 불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기 공장 종업원을 내세우고싶어하는 심정이 다분히 풍기는 녀성지배인의 응석기어린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면이 환하게 웃으시였다.

《준마처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잘 아시는 노래였다.

조선인민이 불굴의 투쟁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구보행군으로 전환시킨 력사적시기에 태여난 노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희열과 랑만을 북돋아준 노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도 시대의 명곡으로 온 나라 인민의 사랑을 받는 그 노래의 가사를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지은것이 못내 기쁘고 대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 지배인과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화장품직장 녀성로동자가 노래 《준마처녀》의 가사를 쓴 로동자시인이라는데 공장에 그런 재간둥이가 있는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정하신 눈길이 유리칸막이안의 작업장에서 격정의 환호를 올리고있는 수수한 작업복차림의 녀성로동

자에게 다시 가닿았다.

이어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 녀성로동자를 향해 친히 머리숙여 인사를 하시는것이였다.

녀성로동자는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직접 뵈온것만도 크나큰 영광인데 그이의 인사까지 받아안았으니 감격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로동자시인의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에서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을 따라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로동계급,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열정적이며 문명한 로동계급의 장한 모습을 한눈에 안아보시였던것이다.

로동자시인에게 하신 인사!

정녕 그 한 사람에게 하신 인사가 아니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동계급에 대한 뜨거운 존중과 지극한 정의 발현이였으며 앞으로도 그들이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라는 간곡한 당부이고 따사로운 축복이였다.

선별공의 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8(2019)년 4월 3일 새로 건설된지 두해도 안되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네번째로 찾으시였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보배공장이 일떠선

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찾고찾으시며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이날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품창고를 나서시여 감자가루생산현장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설비들이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는 현장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감자선별대앞에서 선별공들이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한없는 기쁨속에 바라보시는것이였다.

이윽고 선별공에게 다가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자가 낮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낮지 않다는 대답을 들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다시 앉아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범한 선별공의 의자를 두고 그처럼 기뻐하시는 사연을 잘 아는 그들이였기때문이다.

사실 전해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까지만 하여도 감자선별대앞에는 의자가 없었다.

그날 공장의 여러 공정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자선별공정앞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시고 로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일군들은 영문을 알수 없어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러는 일군들을 뒤에 두고 선별대로 다가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별공에게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힘들지 않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왜 힘들지 않겠는가고, 8시간을 서서 일하자니 힘들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영문을 깨달았다. 선별공정에서 로동자들이 서서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였던것이다.

사실 그때까지 많은 일군들이 공장을 다녀갔어도 누구도 눈여겨보지 못한 선별공들의 서서 일하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은 그 모습을 스쳐보내지 않으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번쩍이는 설비나 쏟아지는 제품에 앞서 로동자들의 모습을 보시였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였던것이다.

로동자들은 격정에 흐느끼였다. 일군들의 자책감도 컸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녀가신 후 선별대앞에는 의자들이 놓여지고 선별공들이 앉아서 일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해에 보시였던 바로 그 광경을 잊지 않으시고 이날 또다시 선별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로동자들이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그리도 기쁘게 바라보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선별공정을 뒤돌아보시며 로동자들이 앉아 일하는것이 아주 멋있다고 다시금 기쁨속에 뇌이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이 나라

인민모두를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세계를 평범한 선별공의 의자도 전하고있는것이다.

진정한 인민의 대표,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2(2023)년 11월 26일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함경남도 제55호선거구 제26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 꾸려진 선거장에 도착하시자 꿈결에도 뵙고싶던 그이를 뜻깊은 선거의 날에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게 된 룡성로동계급의 감격과 환희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로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함경남도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철공장 지배인과 함흥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 3기계직장 직장장, 함흥시 해안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해안구역통계부 부부장에게 투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의원후보자들을 만나시고 이곳로동계급과 함흥시인민들의 믿음을 항상 자각하고 높은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노력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며 인민의 권익과 요구를 옹호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맺 는 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하고 은혜로운 사랑과 믿음으로 하여 조선의 로동계급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강철의 부대,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전위부대,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영웅부대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오직 한마음 당과 수령을 높이 모시고 따르는 충성의 한길에서 주체조선의 로동계급된 크나큰 영예와 존엄을 끝없이 빛내여올수 있었다.

절세위인들과 조선의 로동계급!

이 다정한 말속에는 수령과 전사사이에 맺어지는 끝없는 친근감이 뜨겁게 어려있으며 절세위인을 모시고 혁명하는 조선의 로동계급의 무한한 행복과 함께 그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나아가려는 철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있다.

조선의 로동계급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선봉부대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것이다.